

동학농민혁명 제117주년
제44회 향토현동학축제

이병주
2011. 5. 7. 2:00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 동학의 창도에서 백산대회까지 -

일시 : 2011년 5월 7일 오후 2시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관

정읍시/(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학술대회 일정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 동학의 창도에서 백산대회까지 -

구 분	내 용	발표 및 토론자
13:45 ~ 14:00	식전공연	
14:00 ~ 14:15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 김생기(정읍시장) ◆ 환영사 : 이석문(계승사업회 이사장) ◆ 기념사 : 김영석(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 축 사 : 김철수(정읍시의회 의장)	
	발 표	사회 하우봉(전북대학교)
주제발표 1 14:15 ~ 14:45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민란과 변란	김양식(충북발전연구원)
주제발표 2 14:45 ~ 15:15	동학의 창도와 개벽사상	박맹수(원광대학교)
15:15 ~ 15:25	휴 식	사회 하우봉(전북대학교)
주제발표 3 15:25 ~ 15:55	교조신원운동기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	노용필(한국사학연구소)
주제발표 4 15:55 ~ 16:25	고부봉기에서 백산대회까지	성주현(경기대학교)
16:25 ~ 16:55	종합토론 조광환(계승사업회), 임형진(고려대학교), 박준성(역사문제연구소), 강효숙(원광대학교)	사회 신영우(충북대학교)
16:55	폐 회	

목 차

종합발표

- [발표 1]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민란과 변란 9
김양식(충북개발연구원)
- [발표 2] 동학의 창도와 개벽사상 21
박맹수(원광대학교)
- [발표 3] 교조신원운동기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 39
노용필(한국사학연구소)
- [발표 4] 고부봉기에서 백산대회까지 57
성주현(경기대학교)

종합토론

- [토론 1]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민란과 변란 83
조광환(정음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토론 2] 동학의 창도와 개벽사상 85
임형진(고려대학교)
- [토론 3] 교조신원운동기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 89
박준성(역사문제연구소)
- [토론 4] 고부봉기에서 백산대회까지 91
강효숙(원광대학교)

발표문 1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민란과 변란

김양식(충북개발연구원)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민란과 변란

김양식(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1. 머리말
2. 19세기 후반 민란의 전개와 성격
3. 19세기 후반 화적 활동과 성격
4. 19세기 후반 변란의 전개와 성격
5. 맺음말

1. 머리말

오늘날 세계는 국가간 무한대의 자본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자본의 공세와 그 문화로써 나타난 개인주의와 물질문명은 인류 환경의 파괴와 인간의 물신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속에서 개별 인간은 자본과 그 문화의 소비자로서의 지위만 누리도록 조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인간적인 삶이며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다양한 형태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고민과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그 전망을 찾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역사 속을 헤메게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 자본주의사회의 원형이 만들어지는 19세기 말 한국 근대사회를 탐구할 가치가 있다.

근대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동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농민 저항이 격렬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수만 명의 농민들이 죽어간 동학농민혁명은 근대 한국의 비전과 한계, 왜곡의 파편들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동학농민군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일은 현실사회와 새로운 사회를 전망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토록 잘 길들여진, 전통적 관습과 토지에 얽매인 농민들이 호미와 쟁이 대신에 죽창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본 발표는 19세기 말 농민항쟁의 양상과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내적 연관성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것이 가지는 19세기 사회변동의 의미를 찾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세기말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처지와 그 속에서 농민들이 어떠한 억압대항적인 물리적 힘을 동원해 일상화된 권력구조를 깨고 그들의 지향을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까 한다.

전국시대항쟁
장예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농민층의 계급성만을 앞세운 나머지 지나칠 정도로 계급결정론적으로 19세기말 농민운동을 다룬 것이 사실이다. 즉, 19세기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지배체제의 모순이 확대되고 계급대립이 강화되면서, 농민층의 반봉건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다. 농민을 주체로 접근하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관철되어야 하지만, 첫째 농민들의 계급성과 투쟁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구조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 기존 사회구조와 지배체제가 갖는 견고함 내지 통합능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사회구조적인 변동시각에서 19세기말 사회변동과 그 속에서 전개된 농민항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발표에서는 운동 내 운동이 이루어지는 전이과정과 그 속에서 계급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분화되고 그것이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는 소빈농층만이 투쟁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 다양한 계급적 편차를 가진 운동세력이 운동의 질적 발전과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합·분화되는 측면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특히 근대 민족의 형성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민족 내부의 다양한 계층 움직임과 노선 차이 등을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다.

모든 사회운동은 진행되면서 주도층과 참여층 구성이 바뀌고, 그에 따라 노선·전략 전술·투쟁대상·지향점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구성원은 상층민에서 하층민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운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존의 권력구조와 억압체제는 균열되고, 그것이 파괴되면 될수록 기층민이 사회 전면에 나서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간다.

이와 같은 운동의 지형 변화는 개항 이후 군현 단위의 민란과 동학농민혁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894년은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혼재돼 나타남으로써 정치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각 계급의 현실인식을 크게 분화시켰고, 그것은 농민군의 투쟁노선을 규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집강소가 설치됐던 7, 8월 상황은 하층계급이 혁명적으로 사회 전면에 진출하고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첨예하게 발현됨으로써 사회변혁운동의 내면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19세기말 사회변동과 그 속에 나타난 농민층의 지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또 다른 연구과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바로 농민층에 대항하는 체제 지배집단에 관한 문제이다. 이 역시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다. 즉, 농민 투쟁만 말했지 이에 대항하는 지배집단의 대응과 새로운 권력이 재생산되는 측면은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농민층이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것에 비례하여, 지배집단은 모든 권력과 억압적 장치를 동원해 탄압하고 동요되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새로운 통제장치를 재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변동의 움직임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제 분열과 통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배집단의 최상층부인

정부의 인식과 대응형태에 관해서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접근은 밑으로부터 변동을 가하는 세력과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만나는 지점과 그로 인해 재편성되는 사회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상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2. 19세기 후반 민란의 전개와 성격

5백여년 동안 유지되던 조선왕조체제는 1811년 평안도 농민항쟁, 1862년 삼남 농민항쟁을 거치면서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급격히 붕괴되었다. 특히 개항 이후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된 군현단위의 농민봉기는 점진적으로 체제를 붕괴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개항 이후 민란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확대 발전하였다. 1단계는 개항 이후부터 1885년 이전까지이다. 개항 이후에도 거의 일어나지 않던 민란은 임오군란에서 갑신정변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2단계는 1886년 이후부터 1889년 까지로, 사회가 다소 안정되면서 소강국면을 이루던 민란은 자연재해의 여파로 1880년대 말에 폭증하였다. 3단계는 1890년대초이다. 이 때는 민란이 점점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만연되었는데, 특히 1892년 이후부터는 걸잡을 수 없을 지경으로 빈발해 1893년의 경우 최소 65건 이상이 발생하였고 발생지역도 점차 해서지방을 비롯한 3남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였다.

이와 같은 군현단위의 민란이 일어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장시 수와 역참 수가 도내 어느 지역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민란이 일어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한 도회지나 그 인접 지역으로써, 그 때문에 농민충분해가 심화되고 개항에 따른 교환경제의 영향을 보다 일찍 받았다. 또한 장시와 역참을 통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지역 안팎의 의사소통은 지역 주민들의 사회의식을 제고하고 현실에 대한 재해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란이 일어나는 의식기반이 되었다.

이들 민란이 발생하는 직접적 계기는 주로 '수령·이·향수탈구조' 밑에 놓여 있는 부세제도 운영에서 비롯되었다. 부세 수탈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당시 부세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왕조의 재정구조는 기본적으로 각 관청이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개항 이후 각 관청은 크게 증가한 지출을 위해 수입을 늘려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부세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세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재정 위기에 처한 중앙정부는 조세를 강압적으로 징수하고 여러 잡세를 신설하거나, 차관 원리상환금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등 소상공생산자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토지에 묶여 있는 농민층은 과중한 부세와 수령·이·향들의 수탈, 지주제 강화에 따른 생산조건의 악화와 자연재해의 누적 등으로 절대궁핍생활에 직면해야만 했

다. 더욱이 식민지적 무역구조인 미면교환체제의 여파는 1890년대에 들어와 농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미치었고,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로 인한 곡가 상승과 지주 주도의 상품화폐경제는 소농민경영을 파괴하고 농민층분해를 한층 촉진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해마다 악화되는 부세수탈구조와 지주제 강화는 그 동안 어느 정도 상품유통구조의 발전에 잘 대처했던 농민층으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고 그 위기에 대한 저항으로 여러 형태의 농민봉기를 초래하였다.

민란은 보통 10명 이하의 주동자에 의해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농민층이 계·두레·면리조직을 바탕으로 대거 참여하였다. 민란 주동자는 전반적으로 상층집단에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들은 해당 고을의 지배권력에서 소외된 양반지식인층이거나, 민을 배경으로 지역사회 주도권을 획득하려 한 세력이었다.

민란 주도층이 상층집단에서 나오는 것은 민란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민란은 특성상 군현단위의 기존 사회 틀내에서 발생하고 원인 역시 생산관계보다 유통·분배·소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기존 사회를 에워싸고 있는 제도적 권력장치와 관습·이데올로기 등은 가장 수탈받는 하층계급으로부터 운동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억압할 뿐 아니라, 생산관계 자체를 문제시하는 계급투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 때문에 개항 이후 전개된 민란 주도층은 지배집단 내지 그에 준하는 집단에서 나왔으며, 그들은 이웃한 농민대중과 '납세자'·'소비자'로서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민란이 비록 상층민에 의해 주도되고 설령 향권을 둘러싼 투쟁일지라도, 그 계급적 기반은 농민층에 있었으며 농민적 지향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농민대중이 동원될 수 없었다. 더욱이 개항 이후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체제 균열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인 집단관계가 수직적으로 확산되고 농민대중이 대자적이고 주체적인 사회범주로 자리잡아나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란 주도층은 보다 착취받고 수탈당하는 하층민으로 점차 확산되고 그 출신도 다양화되는 추세였다.

그렇지만 민란은 기본적으로 군현단위로만 전개되는 고립분산성과, 한번 일어났다 가라앉는 일회성·일시성이라는 전근대사회 농민봉기의 특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봉기한 농민들의 투쟁대상도 수령·아전과 같은 공적 지배세력과 향인·토호와 같은 사적 지배세력, 즉 군현단위의 지방권력에 국한되었다. 민란이 전국 차원의 사회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군현단위의 공간틀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민란의 한계는 점점 극복되어가는 양상이었다. 개항 이후 점점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저항세력 사이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민란의 발생공간이 동시성과 인접성을 띠고 지속성과 투쟁강도가 강화되는 지역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지주제 강화와 가속화되는 농민층분해의 결과 나타나는 토지문제·수세문제·광산문제·유통문제로 농민층이 봉기하는 예가 후기로 올수록 증가하고, 그 주도층 역시 점차 하층민으로까지 확대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880년대 후반부터 점증하기 시작해, 1892년 이후 절정을 이루었다. 이는 점차 군현

단위를 뛰어넘는 수평적 의사소통과 사회모순의 공감대가 확대된 결과로써, 운동공간이 전국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점점 폭증하는 민란은 지배층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관련자 처벌에만 급급하던 정부도 1888년 이후로는 민란의 당위성을 일정선상에서 인정하고 농민들의 요구조건을 수렴하려는 경향이었으나, 유교적 신분사회의 기본 테두리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만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대응책으로는 더 이상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균열된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이완된 사회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었다.

더욱이 밑으로부터의 사회변혁운동이 폭증하는 18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기존 법과 이념 테두리 안에서 현상적인 폐단만 고치는데 급급한 정부의 시국 인식과 대응 자세는 더 큰 농민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개항 이후 민란은 비록 직접적인 계기가 주로 군현단위의 부세문제로 일어났을지라도, 일상화된 '수령-이·향 수탈구조'의 악순환, 미면교환체제에 편승한 지주제 강화, 농민층분해의 가속화라는 조건속에서 터져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국가의 성격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주적 상품유통구조의 재편이 없는 한, 농민층의 체제 저항은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3. 19세기 후반 화적 활동과 성격

농민들의 분노는 농민봉기 형태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세금과 고리대와 수령들의 학정에 시달리던 땅 없는 농민들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광산으로, 개항장으로, 도시로 떠돌아다녔다. 때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산 속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것마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물가, 가는 곳마다 수탈을 일삼는 관리들, 외국상인과 물품이 대거 밀려들어 오면서 몰락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들. 이런 것들은 농촌을 떠난 농민들의 생계마저도 어렵게 하였다.

가난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살 수 없었고, 농촌을 떠나서도 이렇게 할 생계수단이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을 고향 밖으로 내몬 관리들과 부호들의 집을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화적'이 된 것이다. 때로는 외국인을 상대로 화적질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며 커다란 사회저항의 한 형태였다.

화적은 전에도 많았으나, 특히 개항 이후 1882년부터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이때부터 화적은 "없는 날이 없고 없는 곳이 없다."고 표현될 정도로 전국에 만연하였다. 당시 화적 발생의 실태에 대해 국왕이나 조정대신들은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일 화적의 폐는 없는 곳이 없으며, 특히 호남이 심합니다. 이들은 무리를 모아 당
黨을 결성하는데, 대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집을 부수고, 살인을 하고, 불을 질
러 재물을 약탈합니다. 또한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남의 부녀자를 겁탈합니다. …
포교들도 도리어 그 해를 입고 수령들도 재앙을 만납니다. 전후 조칙朝飭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근래 명화적당이 없는 곳이 없다.

근래 도적의 소요가 전보다 더욱 심합니다. … 이는 진실로 전에 없었던 일로써 이
웃 나라에서도 들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화적은 없는 곳이 없고 없는 날이 없었다. 그들은 지리산과 같은 산악
지대를 거점으로 삼아 농촌 장시·도회지·개항장과 같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나 부
유한 농촌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화적집단에는 주로 농촌과 도시 빈민·영세상인
층 외에 군인·전직 관리·노비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적을 경우 10명 내외, 많
을 경우 30~40명씩 무리를 지어 나쁜 짓을 일삼은 양반지배층을 약탈하였다.

대낮 큰 길거리임에도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점포를 불태워 약탈하고, 행인을 공격
하고, 상납 공물을 탈취하고, 지방관의 행차를 습격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막히
니 들려오는 말들이 놀랍고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장안에서도 남의 의관을 빼앗
는 변이 왕왕 있습니다. 서울이 이와 같으니 지방은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적들은 무리를 지어 행인들을 습격하고, 가옥·점포·상납물을 약탈하였다.
심지어 포교와 지방관들도 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약탈 대상은 무엇이었는
가? 이들의 약탈 대상은 주로 부호와 객주·여각을 운영하는 대상인, 관아와 중앙에
상납되는 물품이었다. 188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방관도 서슴없이 공격했다.

이들 화적이 못된 벼슬아치와 양반지주들을 혼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굴
총掘塚’이었다. 굴총이란 직접 무덤을 파 해골을 꺼내거나, 서찰을 보내 무덤을 파헤
치겠다고 위협해 돈을 탈취하는 방법이었다.

한 예로 1893년에 충청도 덕산의 화적 고경천은 ‘송악산 협무당松嶽山 俠武黨’ 이
름으로 인근 양반에게 서찰을 보내 굴총하겠다고 위협하여 수천 냥을 받아 냈다.

특히 1885년 이후 화적들이 공공연히 관아와 지방관을 공격하고 굴총이라는 새
로운 약탈수단이 일반화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관에 대한 약탈은 곧
화적들의 인식지평이 국가권력에 대한 부정으로 확대되었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체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굴총이 일반적인 약탈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화적들이 유교사회를 노
골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는 유교적인 관념
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양반사회의 약점을 간파한 화적들은 가장 흔한 약탈방법으로 굴총을 이용하였다. 더욱이 당시 부호들은 많은 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난한 농민들은 무덤을 쓸 자리도 없는 실정이었다. 그에 대한 빈농들의 강한 불만과 저항이 굴총이란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그것은 곧 화적의 의식 속에 중세적인 국가권력과 신분사회와 유교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활빈당을 결성하다

이와 같이 18~19세기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던 화적의 반봉건적 지향은 개항 이후, 특히 1885년 이후에는 보다 고양된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선진적인 화적들 중에는 의羲로써 일본을 징벌하겠다는 명분을 내건 집단도 있었다. 한 예로 1881년경 지리산에 거점을 둔 화적은 부호에게 보낸 격문에 “정의의 이름으로 왜구를 토벌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다. 첫 번째는 화적들이 봉기한 명분을 ‘의’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항 이후 일어난 농민항쟁과 동학농민전쟁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는다는 유교의 義理論에 뿌리를 둔 것으로, 당시 민중운동의 이념적인 방향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곧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 것이다.

두 번째는 화적들의 봉기 목적이 일본 징벌에 있고 이를 위해 돈을 거두었다고 한 점이다. 이는 일반 민중들의 반외세 의식에 기초를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편차를 가진 화적들은 잠재적인 반외세 의식이 단순한 약탈행위로 표출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개혁적인 화적집단은 반외세적인 지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화적의 행위는 단순한 약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과 꿈을 억누르고 있는 봉건세력과 외세에 대한 저항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화적의 사회적인 지향은 활빈당이 조직된 데서도 알 수 있다. 활빈당은 1885년에 이미 전국 곳곳에 결성되어 있었다. 1886년 1월 충청 음성에서는 박순길을 비롯한 8명이 활빈당을 조직한 뒤, 음성·괴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부호들의 돈을 탈취한 일이 있었다.

활빈당이란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조직된 화적당이란 뜻이다. 활빈당이라고 칭한 것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부유한 양반들에게 저항하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그래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뚜렷한 이념을 갖고 있었다. 이는 비록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나, 개항 이후 화적들의 반봉건·반외세 의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상과 같이 개항 이후 “없는 날이 없고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만연된 화적은 돈 가진 자를 습격하고 불을 지르는 등 겉보기에는 강도나 절도범과도 같았다. 그래서 정부는 화적을 소탕하고자 ‘범죄와의 전쟁’을 치렀다. 화적은 분명 조선 왕조와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이며, 체제를 부정하는 반역자였다.

그러나 화적이 어떤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왜 화적질을 하며, 그 결과 사회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둔다면 이들을 단순히 '도적떼'로만 매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19세기 후반에 횡행하던 화적과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째, 화적의 행위는 단순한 약탈 차원을 뛰어넘어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봉건사회와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 화적들은 “우리들은 국왕을 알지 못하며 정부도 알 바 아니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남 출신의 權鳳熙는 화적이 횡행하는 것을 두고 전에 일찍이 없었던 변괴로 보면서 반역집단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화적이 반역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화적이 체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조선왕조체제에 대한 부정은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와 체제질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화적은 기본적으로 농민층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 화적의 대부분은 빈농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기반 역시 농촌사회였다. 화적과 농민들은 서로 통하고 있었다.

화적과 농민의 계급적인 동질성은 화적에 대한 농민들의 우호적인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 예로 1890년에 화적들이 프랑스 인을 약탈하기도 하였는데, 인근 농민들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고 관에서 잡으러 왔을 때 협조하지도 않았다. 이는 화적과 농민들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화적이거나 농민이나 동일한 사회적인 모순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적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지배층의 수탈에 있었고, 각 지방에서 빈발하는 농민봉기 역시 그러하였다. 또 이들의 공격을 받는 층도 똑같이 부호나 관리 등이었다. 그래서 화적이 지배층을 약탈하고 방화·살해·굴총을 일삼는 행위는 농민층의 불만을 대신 해소시켜 그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가라앉게 해 줄 수 있었다.

셋째, 화적은 사회변혁을 위한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화적은 농민사회의 여러 가치와 꿈을 함께 하고 있었고, 무법자·반란자로서 농민들이 일으킨 혁명적인 봉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래서 화적은 여러 형태의 농민항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여러 변혁세력이 화적에 가담하거나 화적을 이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鄭鑑錄』 등에 나타난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왕조를 뒤엎고자 무력봉기를 꾀하는 변란 주도세력이 특히 그러하였다.

4. 19세기 후반 변란의 전개와 성격

민란은 군현단위로 전개된 반면, 변란은 군현단위를 뛰어넘어 예측불허의 장소에

서 발생하였다. 변란을 주도한 층은 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주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정감록류의 예언이나 요참 등을 전면에 내세워 조선왕조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꾀하였다.

이러한 변란은 19세기 전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후반에 들어와 동학과 농민항쟁에 흡수되는 양상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1869년에 閔晦行 등이 일으킨 전라도 광양변란과, 1869년부터 1871년까지 진천·영해·문경 등지에서 네 차례나 변란사건을 주도한 李弼濟 변란이었다.¹⁾

민회행 등은 강진에 모여 거사를 모의한 뒤, 1869년 3월 24일 병사 70여 명을 이끌고 광양현을 침입하였다. 이들은 현감을 사로잡고 印符를 탈취한 뒤 社倉을 부수고 농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 이튿날 현감이 탈출해 농민 수천 명을 모아 반격하여 민회행 일행 중 수십 명을 체포하였다. 이 광양변란은 처음으로 국가 반역세력이 거사를 일으켜 음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예이다. 이는 이필제의 난에 영향을 미쳤다.

이필제는 1869년에서 1871년에 걸쳐 진천, 진주, 영해, 문경 등 네 곳에서 변란을 연속적으로 기도했다. 그 중에서 1871년 경상도 영해에서 일으킨 항쟁은 성공하기까지 했다.

이필제는 1870년에 경남 진주에서 거사를 꾀하려다 실패하여 영해로 피신하였다. 그는 뒷날 동학의 제2대 교주가 된 최시형과 함께 500여 명의 동학교도를 동원하여 야밤에 영해부를 습격해 점령하였다. 그 뒤 이필제는 같은 해 8월 2일 문경에서 봉기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같은 이필제의 봉기는 동학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이 참여했다는 점 등에서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가능성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란세력은 화적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민회행과 이필제가 광양과 영해를 점령할 때 밤을 타서 습격한 점이나, 무기를 소지한 점이나, 두목의 지휘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점 등은 화적과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이필제는 한때 화적당을 만들어 이끌었다는 설도 있는데, 실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적이 되어 부호의 재물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이런 면을 볼 때 19세기 후반에 크고 작은 변란을 일으킨 세력과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던 화적은 서로 통하였던 것 같다. 그들은 다같이 자신의 토지를 빼앗겼거나 체제에 반항하는 세력이었다. 그래서 서로 연계되어 변란을 꾀하거나 화적집단을 결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변란은 18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거의 사라지는데, 그것은 화적의 조직과 규모 등이 성장하면서 변란세력이 보다 현실과 사회적 모순을 바탕으로 농민봉기나

1) 19세기 후반 변란에 대해서는 배항섭, 1992, <19세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 배항섭, 2002,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경인문화사) ; 하원호, 2004, <조선후기 변란과 민중의식의 성장>, <<사학연구>> 75, 2004 ; 윤대원, 2005, <이필제, 때 이른 민중운동의 지도자>, <<내일을 여는 역사>> 21 참조.

화적, 동학으로 흡수되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화적집단이 변란세력하고만 연계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농민항쟁을 주도하거나 항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888년에 함경도 영흥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그 원인은 전현직 부사의 탐학과 환곡의 폐단에 있었는데, 이 항쟁을 이끈 주도자 3명이 화적이었다.

이처럼 화적집단은 조직력과 전투력이 있는데다 반봉건·반외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변혁할 커다란 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화적은 기본적으로 사회 저항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그 행위가 단순한 약탈로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들의 활동이 사회변혁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화적은 사회적인 모순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념적인 지향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개항 이후 화적집단은 조직적인 역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반봉건·반외세 의식이 있었음에도 약탈 근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사회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이념이 있어야 했고, 변혁 주체인 농민층과 결합되어야만 했다. 농민대중들은 그들을 이끌 지도자와 이념만 만나면 엄청난 사회변혁의 힘을 분출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동학이요,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화적들은 사회 각지에 흩어져 있던 변란세력과 연계되기도 하고, 때로는 농민항쟁에 참여하면서 1894년 동학농민전쟁으로 합류해 들어가고 있었다.

실제 일부 화적은 당시 하층대중들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화적은 농민들에게 없는 무장력과 전투력·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활동이 자유로운 잇점이 있어, 이들의 동학농민혁명 참가는 동학농민군에 큰 무력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전 반봉건·반외세적인 사회집단으로 대두한 세력은 크게 보아 군현단위의 민란 경험을 축적한 농민층과, 농촌을 떠나 자유롭게 활동하던 화적집단, 그리고 동학 내부의 혁신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농민 저항의 한 흐름은 비록 그것이 주류가 아니었을지라도, 1880년대에 들어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된 화적집단에 있었다. 그것은 곧 19세기 변란의 큰 흐름이 화적, 그 중에서도 활빈당과 같은 의적류의 무장집단으로 흡수되고 그것이 동학과 민란과 결합, 대대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19세기말 조선사회는 중세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였다. 정치

적으로는 왕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과거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매관매직과 무명잡세가 성행하는 등 분명 중세적인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신분제가 형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인 생산과 교환의 제관계가 성장하고 농민층 분해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는 더 나아가 봉건체제를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근대사회로의 추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내적 발전은 1876년 개항을 계기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었다. 자본주의 속성상 선진자본주의는 후진자본주의를 종속, 자국의 상품 판매와 자본 투자, 원료 공급지로 전화시키려는 끊임없는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876년부터 문호를 세계에 개방한 조선은 외세의 압력을 뚫고 그동안 축적해온 발전 가능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힘든 과제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가권력층과 양반지주층은 중세적인 통치체제를 매개로 농민을 억압하고 수탈하였으며, 중세사회의 해체와 비례하여 가중되는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봉건권력을 이용해 벗어나려 하였다. 기존 보수지배층은 급변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실천없이 조선후기 이래 성장한 생산력의 몫을 챙기기 급급하였고, 이를 위해 농민 수탈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은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오히려 사회모순만 증폭시킬 뿐이었다.

이는 곧 국가체제 차원의 문제였다. 500여 년 동안 시대적 변화에 조용하여 나름대로 발전된 형태로 재생산되어 온 조선왕조체제와 지배이데올로기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더 이상의 자기 발전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조건들을 수용하긴 커녕 그것을 억압하는 기제로 기능하였다. 조선후기 이래 성장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시대로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19세기말 시대적 과제는 일상화된 기존 법과 제도 및 사상체계를 깨지 않으면 안되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어떤 전망을 가지고 구체제를 변혁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18~19세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상품유통구조의 발전에 잘 대처했던 다양한 사회집단들은 여러 형태의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위협에 대응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상품생산자로서의 자립과 성장을 지향하던 농민층은 개항 이후 근본적인 토대의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의 삶과 생산양식이 점점 무산자의 지위로 위협받고 있음을 알고, 봉건체제의 억압성과 수탈성을 인식하면서, 점차 이에 항거하는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였다.

개항 이후 민란은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1892년 부터는 걸잡을 수 없을 지경으로 빈발하였다. 민란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계기는 주로 '수령-이·향수탈구조' 밑에 놓여 있는 부세제도 운영상의 폐단에서 비롯되었고, 주동자 역시 상층집단에서 나왔다. 그 이유는 민란 자체가 기존의 제도적 권력장치와 이데올로기 등이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현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하층계급으로부터 운동의 지도자가 나오는 경우는 민란이 장기화·폭력화되면서 기존 사회틀을 깨거나 그런 사회적 조건에서 발생할 때인데, 실제 1894년경으로 올수록 민란 주도층은 보다 착취받고 수탈당하는 하층민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였다. 이는 그만큼 국가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심각한 균열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개항 이후 화적의 출몰 실상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화적집단은 특히 1882년 이후 치성해, 18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조직적이고 일상화된 형태의 한 사회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같은 농민무장집단의 세력화는 곧 사회 불안과 체제 균열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세사회의 해체와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그 저변에 첨예화된 사회모순이 극한 상태로 분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난한 농민들로부터 무한히 공급되는 화적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그들을 생산수단에서 소외시키는 중세적 사회질서와 생산관계에 대한 반항인 동시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이 약탈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농민과 같은 계급적 처지에 있던 화적집단은 변혁운동시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동맹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정부와 정태적인 양반지배층은 19세기말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도 유교적 신분사회의 기본 테두리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만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였다. 이런 대응책으로는 더 이상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균열된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이완된 사회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 조선 국가의 성격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주적 상품유통구조의 재편이 없는 한, 어떤 형태로든 농민층의 저항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특히 1890년대에 들어와 폭증하는 민란과 횡행하는 화적집단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농민 저항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들의 집단화와 현실사회에 대한 재해석 기회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존 체제에 더 큰 균열을 가하고 사회 깊숙히 숨어 있던 모순과 기층민중들의 바람이 사회 전면에 표출되는 조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저항집단 사이(특히 동학 남접)에 종적·횡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군현단위의 정치적 공간은 깨어지고 전국 차원의 사회 혁신운동으로 발전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같은 조건들은 특정 세력과 계기에 의해 폭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다.

발표문 2

동학의 창도와 개벽사상

박맹수(원광대학교)

동학 창도와 개벽사상

박맹수(원광대학교)

1. 동학 창도의 역사적 배경
2. 수운 최제우와 동학 창도
3. 동학의 사상적 특성
4. 해월 최시형과 동학의 발전

1. 동학 창도의 역사적 배경

동학(東學) 창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으나, 크게 19세기 조선이 전혀 새롭게 대응해야만 했던 서양 열강의 동점(東漸)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먼저 19세기 이전까지 조선이 맞이했던 대외적 위기와는 전혀 차원이 달랐던 19세기 서양열강의 동점의 역사를 둘러싼 대외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동학이 창도되기 2~3백 년 전부터 서양 열강은 조선, 중국, 일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문명권을 향하여 동점해오고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개항이 이루어지고, 영국과 프랑스의 중국에 대한 침략이 노골화되어 서양 열강의 동점 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역시 열강의 이권쟁탈 대상이 되어 갔다.

그런데 당시 동아시아로 밀려오던 서양 열강은 여러 측면에서 동아시아 삼국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 첫째가 이념의 문제로서 서양 열강을 지탱하고 있던 이념적 지주는 동양의 이념적 지주인 유학(儒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서학(西學 ; Christianity)이었다. 둘째 서양 열강은 자연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이룩한 근대적인 과학기술이 동아시아에 비해 월등하게 발달하고 있었다. 셋째, 당시 서양 열강은 시장경제와 국가간의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세적 신분질서를 타파한 국민국가(또는 민족국가) 체제를 갖춘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상과 같은 요소를 근간으로 한 서양 열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명권 여러 나라들이 일찍이 접해본 적이 없는 매우

이질적인 체제의 국가들이었다.

또한 서양 열강은 동아시아 문명권 여러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역사관·자연관·세계관 등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서양 열강의 역사관은 기독교의 직선적 사관, 즉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인류 역사가 비롯되어 하느님의 심판으로 종말이 온다는 종말론적 역사관으로부터 영향 받아, 인류 역사는 일직선적으로 무한히 진보한다는 진보사관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역사관은 전형적인 직선적 사관으로서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역사관과는 일정하게 차원을 달리 하였다. 즉, 동아시아의 유가(儒家) 사상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일치일란(一致一亂)의 역사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도가(道家) 사상 역시 역사를 유위(有爲)-무위(無爲)로 순환하는 역사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 문명권 여러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이질적인 역사관, 자연관, 세계관을 가진 서양 열강의 동점은 동아시아 문명권 특히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에 심대한 충격을 초래하였다. 이에 동양 3국은 자국의 특수한 문화전통을 위협하는 서양 열강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논리와 방책을 수립하기에 여념이 없게 되었다.

19세기 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 조선의 동도서기(東道西器),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의 논리는 바로 도전해오는 서양 열강의 이질적인 문명을 자국의 문화 전통의 기반 위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고자 고심했던 대응책의 구체적 표현들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3국은 서양 열강의 도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서양문명에 대한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동점해 오는 서양문명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가운데 서양문명이 지닌 근대과학기술만을 취하여 자국의 정신문화의 전통위에 결합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즉, 서양의 과학기술을 낳은 것은 바로 서구의 합리적 이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만을 따로 떼어 내어 수용 가능하다고 본 중체서용·동도서기의 논리는 명백한 한계를 가진 사고였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3국의 서양문명 수용은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기에 이른다.

둘째, 19세기 서양 열강은 이른바 신분제 봉건제가 중심을 이루던 중세(中世)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된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여 국민적 통합을 이룬 가운데 국력을 기울여 비서구 문명권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 3국은 전통적 군주 중심의 왕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도전해 오는 서양 문명권 국가들에 대한 민족 통합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갈등하는 가운데 서양문명의 도전에 응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같은 동양 3국의 서양열강에 대한 대응현상들은 국력의 분산을 초래하였다.

셋째,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만국공법(萬國公法 ; 근대 국제법)을 내세운

19세기 서구문명권 국가들은 근대적인 과학기술에 힘입어 생산한 자국의 자본제 상품 시장의 확보와 값싼 원료의 공급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한 가운데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19세기 서양 열강이 자국의 무한 이익의 확보를 위해 식민지 건설을 위해 동양에 대한 침탈에 열을 올리던 행태를 제국주의(帝國主義)라고 부른다. 따라서 동아시아로 몰려온 19세기 서양 열강은 모두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3국은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도전에 응전할 만한 근대적인 군사력이 없었으며, 당시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인식의 수준마저도 미약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던 동아시아 문명권은 물밀듯 밀려오는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도전에 의하여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40~42년의 제1차 중영전쟁(中英戰爭=아편전쟁), 1856~60년의 제2차 중영전쟁(애로우호전쟁)은 동아시아 3국에 심대한 충격과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같은 충격은 천하(天下),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몰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뿌리가 되었다. 특히 2차 중영전쟁에서 청나라 황제가 피난길에 오르고, 영불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여 잔인한 약탈과 학살을 벌였다는 소식에 대하여 ‘입술(淸國=中國)과 이(朝鮮)’의 관계에 놓여 있던 19세기 중엽의 조선 조정과 조선 민중이 느낀 위기의식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1860년에 수운 최제우(1824~1864)가 동학을 창도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한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계책’, 즉 서양의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하고자 했던 조선 민중들의 ‘자기 확립’의 사상, 또는 학문을 제시하고자 절치부심했던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음은 조선왕조 지배체제를 둘러싼 모순에 대하여 살필 차례이다. 임진(壬辰)·병자(丙子)의 양란(兩亂)을 지나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조선왕조 지배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 우선 수백 년 간 민의 통치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던 주자학이 경직화되거나 공소화(空疎化)되고 그에 바탕한 지배질서는 한 당파에 의하여 좌우되는 파행적인 세도정치로 변질되었다. 과거제도(科擧制度)는 형식 뿐으로서 대부분의 관직이 돈에 의하여 사고파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과거시험, 즉 식년시(式年試)는 세도가의 자제를 합격시키는데 필요한 형식적 절차일 따름이요, 합격자는 이미 내정되어 있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문란한 정치현실은 특정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로 인하여 견제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었다.

한편 문란한 정치현실은 결국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위기를 부채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의 어버이라 일컬어지던 지방수령들로 하여금 가혹한 세금의 징수와 수탈을 일삼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지방수령들은 세도정치 아래에서 권력가문의 도움을 받아 지방에 부임하는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상납하였

고, 지방에 부임해서는 상납한 돈을 채우기 위하여 갖가지 명목의 세금을 거두어들여 착복하였다. 그 결과 일반 농민들은 원래 1/10에 해당하는 세금을 8~9/10까지 납부해야 하는 가혹한 수탈에 시달려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여기저기서 봉기하여 수탈을 일삼는 수령, 그리고 수령과 한 통속으로 농민들을 핍박해온 향리들을 징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조선후기 특히 19세기는 '민란(民亂)의 시대'라 일컬을 만큼 수많은 민중봉기가 잇따른 시기였던 것이다.

빈발하는 민란에 더하여 조선후기 민중들의 생존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던 존재는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콜레라와 빈번한 자연재해였다. 호열자라 일컬어지던 콜레라는 20~30년 간격으로 유행하여 심할 경우 한 해 10만인 이상의 사망자가 나게 함으로써 전 조선 민중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여기에 빈번한 가뭄·홍수·기근 등이 겹쳐 조선후기 피지배 민중층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혹한 삶의 조건들은 대부분의 민중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진인(眞人, 또는 理人)'의 출현을 고대하도록 만들었으며, 민중들은 진인의 출현에 의해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로부터의 구원이나 해방을 학수고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진인을 기다리던 민중들의 소망은, 조선후기에 들어 지배체제의 모순이 격화됨으로 인하여 피지배층들의 삶의 현실이 가혹해지는 시대적 조건을 타고 널리 유행하던 『정감록(鄭鑑錄)』과 같은 비기도참 서적에 대한 신앙과 결합되어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진인출현설'은 빈번히 일어나던 민란과 결합하여 민중들을 결속시키는 이념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선왕조의 내부 모순에 대하여 안으로부터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운동이 조선후기에 일부 양반층 속에서 일어났다. 널리 알려진 실학(實學)이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실학은 조선후기에 와서 벼슬자리로부터 소외된 재야 지식인들과 일부 관료지식인들이 굳어진 주자학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고, 특히 주자학이 소홀히 취급했던 농·공·상 등 현실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주자학과 기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기에 부심하는 가운데 성립시킨 학문이었다. 실학이 지닌 이 같은 학문적 방향은 당연히 모순에 가득 찬 조선왕조 지배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론(改革論)의 성격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야의 양반 지식층에 의해 제기된 개혁론으로서 '위로부터의 개혁'사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조선왕조 지배체제를 '위로부터 개혁'하고자 등장했던 실학은 공리공론(空理空論)에 떨어진 주자학의 한계를 극복할만한 요소를 충분히 간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 내부에서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이념 제시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실학이 조선왕조의 중세적 모순을 개혁해내는 개혁사상으로서 역할수행을 해내지 못하게 되자 조선후기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는 더욱 많은 우여곡절

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조선왕조의 내부 모순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는 길이 좌절됨으로써 조선왕조는 결국 외세에 의해 변혁을 강제(強制)당하게 되었고, 민중들로부터도 더욱 강력한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안으로는 '반봉건(反封建)' 근대사회의 건설과 밖으로는 동점해 오는 서구문명권, 즉 서양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해야하는 '반침략(反侵略)' 국권 수호라는 이중의 과제를 짊어진 채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2. 수운 최제우와 동학 창도

19세기에 들어 서양 열강들의 동점 현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중국 중심의 중화체제(中華體制)가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에, 조선왕조는 정치적으로는 세도정치와 과거제도의 문란으로, 사회·경제적으로는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이라는 삼정(三政)을 중심으로 하는 수취제도의 문란과 봉건적 지배층의 일반 민중에 대한 가혹한 수탈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중들의 빈번한 봉기로 인한 지배체제의 모순이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주기적으로 유행하던 괴질(怪疾; 콜레라 등의 전염병)의 유행과 빈발하는 자연재해(自然災害)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 그러나 18세기를 풍미하며 새로운 개혁사상으로 등장했던 실학은 지배체제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급변하는 19세기의 시대상황 속에서 조선왕조가 나아갈 방향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전통 사상이나 종교들 역시 19세기의 시대적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제시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세기말적인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한 선지자들이 나와 일반 민중들을 결속시키면서 지속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른바 '진인(眞人)' 또는 '이인(理人)'들이 다투어 나와 진인출현을 대망하는 민중들을 결속시켜 변란을 도모하거나 비밀결사를 이룩하여 세력을 확대해가던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정감록』 같은 비기서(秘記書)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동안 지배층에 의해 일방적으로 다스림의 대상으로 객체화되어 있던 피지배층들이 19세기 이중의 모순에 의해 대단히 가혹해진 삶의 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감록』이나 '진인출현설' 등에 가탁(假託)함으로써 민중들의 의식이 일정하게 성숙하기에 이른 것이다. 생존을 위협받는 가혹한 조건 속에서 지배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러한 시대적 모순을 타파하고자 했던 민중들 나름의 문제의식이 『정감록』과 같은 비기서와 '진인출현설'에 대한 가탁을 통해 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감의 사상

이것이 내 생각이지
정감사(정감) 제자

정감의 사상 (정감)
= 27 =
이것이 내 생각이지

⇒ 정감의 사상

정감의 사상
정감

그러나 이들 『정감록』과 같은 비기서나 ‘진인출현설’에 가탁한 민중들의 의식은 아직 영성하기 그지없어 조직화(組織化)되거나 체계화(體系化)된 이념으로 성숙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곧잘 조선후기 민란의 지도이념으로 기능하곤 했던 『정감록』과 같은 비기서의 변혁(變革)사상은 군현 단위를 뛰어넘지 못하고 오로지 한 고을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고립적인 민중봉기 이념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시대적 모순이 심화되던 19세기에 『정감록』류의 변혁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민중들의 의식이 일정하게 성숙하고 있던 시대에 수운 최제우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수운 최제우는 1824(순조 24, 갑신)년 음력 10월 28일 경상도 경주부 현곡면 가정리(慶州府 見谷面 柯亭里 : 현 경상북도 월성군 현곡면 가정 1리)에서 부친 최옥(崔燾, 1762~1840, 호 근암)과 모친 곡산한씨(谷山韓氏) 사이에서 만득자(晩得子 ; 최옥의 나이 63세 때에 태어남)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복술(福述)이며, 본명은 제선(濟宣)이고 제우(濟愚)는 1859년에 고친 이름이며, 자는 성묵(性默)이요, 호가 수운(水雲)이었다. 그의 모친은 부친의 세 번째 부인이었으나 과부였으므로 정식 결혼을 한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수운은 이른바 재가녀(再嫁女)의 자식으로 어려서부터 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당시 재가녀의 자식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수운 최제우는 퇴계학(退溪學)의 학통을 이어 영남 일대에 명성이 있던 부친 슬하에서 수학하여 상당 수준의 유교적 교양을 닦았으나(수운의 부친은 영남 일대의 4백여 명에 이르는 유생들과 교유할 정도로 文名이 있었다.), 10세 때 이미 모친상을 당하고 17세 때는 부친상마저 당하여 지속적으로 학문을 닦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9세(1842)에 울산에 살던 밀양박씨(密陽朴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21세 때부터는 장사 길에 나서기도 하며 주유팔로(周遊八路)의 길에 나섰다. 장사 길에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심 풍속을 살피는 생활이 31세(1854)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수운 최제우는 이미 지니고 있던 개인적인 고뇌와 자신이 목격한 혼란한 시대상으로 인하여 갖게 된 고뇌 등 이중의 고뇌를 안으며 그 해결을 위한 방향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약 10여년에 걸친 방향의 기간 동안 해결의 방법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32세가 되던 1855년에 일종의 신비체험(神秘體驗)을 하고(이 체험을 일러 동학 천도교계에서는 ‘乙卯天書’라고 한다.), 그것을 계기로 이듬해(1856년)에는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 내원암(內院庵) 근처에 있는 자연동굴(이 자연동굴을 寂滅窟이라고도 한다.)에 들어가 49일간의 기도생활을 하던 가운데, 그곳에서 또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 역시 수운 자신의 고뇌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줄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수운 최제우는 36세 때인 1859년 음력 10월에 아무 것

도 이론 것 없이 1854년 이후 약 몇 년 동안 살았던 울산 처가로부터 경주 용담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왔다. 경주 용담의 고향으로 돌아온 뒤 수운은 나이 40이 가깝도록 그 어느 것 하나 이론바 없던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처절한 심경이 되어 자신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상적 모색에 침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860년 음력 4월 5일 동학의 창시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 있어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갖기에 이른다. 이것을 동학 및 천도교계에서는 ‘천사문답(天師問答)’이라고 부른다.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에 이루어진 수운의 종교체험 과정에 대하여는 수운 자신이 직접 회상하여 기록한 「용담가」·「안심가」·「교훈가」 등의 한글 가사와 「포덕문」·「논학문」 등의 한문 저작 속에 잘 묘사되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수운 최제우에 의한 동학의 창도의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선후기에 이르러 일정하게 성숙하고 있던 민중의식을 기반으로 삼아 피지배 민중들의 요구와 이해를 집약적으로 대변하여 창도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수운 최제우는 바로 몰락양반의 후예로서 겪어야 했던 개인적 고난과 갈등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당대 민중들의 원망(願望)을 자신의 깨달음 속에서 승화(昇華)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동학은 대내외적으로 이종의 모순에 의해 시달리던 조선후기 민중들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제시한 ‘조선민중의 자기 확립 사상’이었던 것이며, 최제우는 바로 조선후기 민중을 대표하여 당시의 민중의식을 조직화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최제우 · *최제의 학통은 이기백의*

3. 동학의 사상적 특성

수운 최제우는 1860년의 종교체험 이후 약 1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친 다음, 1861년 음력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863년 음력 12월에 체포되기까지 수운 최제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의 가르침을 민중들에게 전파하였다. 이처럼 1861년부터 1863년까지 수운에 의해 확립된 동학의 가르침은 2대 교주 최시형 등에 의하여 1880년과 1881년에 집성된 한문 경전 『동경대전(東經大全)』과 한글 경전 『용담유사』에 잘 드러나 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동학의 중요한 사상적 특성은 대체로 ‘다시 개벽(開闢)’ (=後天開闢)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사상, 시천주(侍天主)와 수심정기(修心正氣) 사상, 치병(治病)과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사상, 척왜양(斥倭洋)의 민족주체 사상, 정감록적 민중사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동학의 사상적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다시 개벽(=後天開闢)과 무위이화 사상

수운 최제우는 그의 한글경전 『용담유사』에서 자신이 득도하기 직전까지의 시대를 '개벽 후 오만 년' '하원갑' '전만고' 시대라고 표현하고, 이 시대는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시대로서 모순에 가득찬 시대임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다시 개벽', '상원갑', '후만고', '오만년지운수'의 시대로서 이 시대는 '동귀일체(同歸一體)'의 호시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혼란한 시대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종말론적 사상을 주창하면서도, 다가오는 새 시대야말로 지극히 이상적인 새 시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수운 최제우는 한문경전 『동경대전』에 들어 있는 「포덕문(布德文)」에서 인류 역사의 변천을 우부우민(愚夫愚民)의 시대, 오제(五帝) 이후 성인(聖人)의 시대, 각자위심의 시대, 다시 개벽(開闢)의 시대로 구분하여 새로운 역사의 도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수운은 자신의 깨달음이 곧 각자위심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동귀일체의 시대로 만들며, (先天) 개벽 후 오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낡은 시대를 다시(後天) 개벽하는 가르침이라고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수운 자신이 확립한 동학사상이야말로 (先天) 개벽 이래 오만 년 동안 지속되어온 지금까지의 문명을 해체시키고, 다시(後天) 개벽 이후 오만 년 동안 지속될 새로운 문명을 열기 위한 그 '무엇에 비길 수 없는 도(無極大道)'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엇에 비길 수 없는 도'의 근본원리가 바로 '무위이화'라고 수운 자신은 말하고 있다. 원래 유위(有爲), 즉 자연(自然)으로부터 일탈한 작위(作爲)에 대한 강력한 비판·극복의 의미를 가진 무위의 개념이 문제된 것은 노자(老子)에 의해서였다. 노자의 무위는 자연의 질서로부터 일탈하여 많은 문제를 낳은 인간의 유위(작위, 즉 문명)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수운 최제우에 의해 제기된 무위이화 역시 노자의 무위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노자의 그것과는 구분된다. 노자의 무위가 동양 문명권에 한정된 가운데 강조된 것이라면, 수운 최제우의 무위는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후천 시대의 무위로서 동서 양대 문명권을 상정한 가운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자가 인식했던 유위는 노자가 생존하던 당시의 '천하의 현실', 즉 동아시아가 중심이었다면, 수운 최제우가 인식한 유위는 서구문명의 동점 현상에서 초래된 '동아시아 및 조선 땅에서 빛어지고 있는 유위 현상, 즉 동서 문명의 충돌 현상'을 포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수운 최제우가 주창한 무위이화(無爲而化)는 당시 동점해 온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및 조선 침략에서 비롯된 모순=유위를 '무위화(無爲化)'하자는 뜻으로 제기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운 최제우가 제시한 무위이화를 '하는 일없이 저절로 이룬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뜻을 한창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수운이 제시한 무위

이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위, 즉 자연의 질서(최제우는 이를 ‘天道’라고 파악하였다.)로부터 일탈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민유방본(民唯邦本)이라는 왕도 정치의 이상에서 벗어나 가렴주구와 수탈을 일삼고 있던 조선왕조의 지배층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수운이 제시한 ‘다시 개혁’과 ‘무위이화’는 자연의 질서 즉 천도(天道)로부터 일탈함으로써 빚어진 모순으로 가득한 낡은 시대와 낡은 문명을 극복하고, 다시 천도를 회복하고 천도에 일치함으로써 새 시대의 새 문명을 열고자 하는 조선 민중의 비전으로 제시된 획기적인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시천주와 수심정기 사상

수운 최제우는 『동경대전』과 「논학문(論學文=東學論)」에서 ‘오심즉여심(吾心即汝心)’ ‘천심즉인심(天心即人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리고 『용담유사』와 「교훈가」에서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만 믿었어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말가.”라는 표현을 통하여 종래 우리 민족이 경건하게 모셔오던 ‘하늘님’과 인간이 들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즉 수운은 오랜 수련을 통하여 ‘하늘님’과 내면적 일체화를 이루는 체험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시천주’를 이루었다. 이 때 수운이 체험한 ‘하늘님’은 어떤 초월적 존재로서 천상에 존재하는 ‘하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수운은 사람이면 그 누구나 자신이 가르친 방법대로 수련을 행하면, 시천주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늘님’과 내면적 일체화를 이룰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高下)에 관계없이 수련을 통하여 시천주(侍天主)가 가능함으로써 ‘하늘님’과 일체화할 수 있고, 자기 안에 모셔진 ‘하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수운의 시천주 사상은 바로 19세기 중반에 조선의 근대적 평등사상으로 정립된 것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같이 수운에 의해 확립된 근대적 평등사상은 해월 최시형을 통해 실천적으로 전개되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선 민중의 폭발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이 ‘하늘님’과 일체화를 이루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자기 안에 모셔진 ‘하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최제우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수심정기’라는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함으로써 시천주, 즉 ‘하늘님’과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제우는 다시 수심정기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는 길로서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라는 21자 주문 수행과 성경신(誠敬信)의 수행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척왜양의 민족주체사상

수운은 자신이 제정했던 동학의 주요 의식인 검무(劍舞)와 검가(劍歌)를 통하여 당시 조선을 향해 밀려들고 있던 서양 오랑캐(=洋夷)를 제압하고자 하였다. 그는 검가를 통하여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투적 의지를 고양시키는 한편, 검무를 통하여 훈련을 한 다음 유사시 일제히 일어나 오랑캐를 물리치도록 하자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을 동학이라 명명한 것은 바로 서학을 제압하고자 한 것이라 하여 민족 주체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 임진왜란 당시 왜의 침략을 상기하는 내용이 담긴 가사를 남기면서 동학은 바로 '개 같은 왜적 놈'들을 소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최제우의 척왜양사상은 그 후 줄곧 동학의 기본사상으로 계승되어 왜양(倭洋 =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이 갈수록 노골화되어 나타나던 1890년대 초에는 동학의 '대선생(大先生)' 신원운동(= 교조신원운동)의 주된 이념으로 나타났으며, '대선생' 신원운동의 이념으로 나타난 척왜양 사상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1893년 3월 보은취회(報恩聚會)의 '척왜양창의'의 반침략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반침략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4) 치병 및 유무상자의 사상

수운 최제우는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조선후기 이래 널리 유행하던 콜레라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처방도 함께 제시한다. 즉 자신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 병도 자연 치유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수운 최제우는 그 같은 증거로서 자신이 '하늘님'과 일체화되는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신령스런 부적(수운은 이것을 일러 '靈符' 또는 '弓乙符'라 불렀다.)을 그려 태워 맑은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자신의 병을 치유하였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영부를 그려 나누어 주면서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주술적인 믿음의 요소라든지, 당시 전승되어 오던 민간요법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죽음의 병'이라 할 수 있는 콜레라 앞에서 예방과 치료의 수단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던 당시 조선 민중의 처지에서는 수운 자신의 치유의 경험과 그가 그려 나누어 주던 영부(靈符)의 효능에 대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수운이 보여준 치병(治病) 능력에 대해 당시의 민중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던 배경에는 조선후기에 1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 이하의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200여년 동안 9회에 걸쳐 유행하고, 1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경우도 6회에 달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당시 조정에서도 속수무책이었던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제우의 가르침은 그가 당시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병사상은 19세기 동학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수운은 포덕(布德) 초기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였다. '유무상자(有無相資)', 즉 경제력 여력이 넉넉한 교도들이 가난한 교도들을 돕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학 조직은 최제우 당시부터 매우 끈끈한 공동체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그가 처형당한 후에도 수십 년간 지하 조직으로 존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요약하자면, 동학의 치병사상과 유무상자의 사상은 당시 조선민중들에게서 동학의 대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특징적 요소라 할 만하다.

5) 정감록적 민중사상

수운 최제우가 남긴 한글가사인 「몽중노소문답가」에는 조선후기 민중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와 신봉을 받고 있던 『정감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수용되어 있다.

이른바 피지배 민중의 경전이라 할 『정감록』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상적 특징은 위기의 시대 병화(兵禍)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십승지(十勝地) 사상 즉 피란사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시대 상황을 초월적 능력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해줄 만한 위대한 인물의 출현을 고대하는 진인사상과, 왕조가 교체되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것이라는 왕조교체사상이 핵심이다.

수운 최제우는 『정감록』에 나타난 피란사상과 진인사상, 왕조교체사상 등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병화가 없는 새로운 시대, 즉 다시 개벽되는 새 시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 라고 하여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빈천자(貧賤者)'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예언적 요소 역시 『정감록』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감록』적 요소를 풍부하게 수용한 동학사상은 당시대 조선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민중들의 정치사상적 견해를 대변하는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동학사상 안에 수용된 정감록적 요소는 조선후기 민중의 원망을 반영함으로써 동학사상으로 하여금 당시의 민중과 강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동학사상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조선왕조가 직면했던 역사적 과제 즉 조선왕조 내부의 여러 모순을 극복하여 근대민족국가를 이루는 일(반봉건)과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여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조선을 지켜내는 일(반침략)에 대한 이념적 요소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는 오히려 동학은 당시 조선민중들로 하여금 고난에 처한 현실로부터의 피난처 내지 도

피체로서의 환상적이며 초현실적인 종교사상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두 측면은 수운 최제우에 의해 제시된 초기 동학사상으로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 시기 동학사상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학사상을 연구해온 대부분의 연구자는 위의 두 측면 중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동학사상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견해를 말한다면 동학사상의 두 주요 측면을 지나치게 구분하거나,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동학사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동학사상은 그 자체 내에 이미 반봉건·반침략사상을 확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당시 민중들의 의식에 다가설만한 민중적 요소까지도 포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의 무위이화는 결코 온갖 모순이 가득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시운에 의지하여 '하는 일 없이 저절로 이룬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온갖 형태의 인위가 빚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현실부정의 원리인 것이다. 여기에서 반봉건의 논리도, 반침략의 이데올로기도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이 동학사상을 인식하는 데 적용한 학문적 방법론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동학사상을 동양사상의 기반 위에서 그리고 조선사상사가 내재적으로 발전해온 맥락 위에서 조선 민중의 자기확립 사상으로서 바르게 확립하기 위하여 방법론적 반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동학사상은 혁명성을 가졌는가, 이른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이념이 동학사상인가 아닌가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질문을 우리는 이제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들은 동학조직과 동학접주들, 그리고 동학의 사상적 제요소들이 1894년 봉기에 대단히 깊숙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1894년 당시 동학은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봉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894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호칭에 '동학'을 넣어 명명하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동학은 '혁명(革命)'을 넘어 '개벽(開闢)'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이다. 개벽은 혁명의 차원---- 단기간에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 한 사회의 상층지배구조를 개혁하려는----을 넘어선다. 개벽은 인류가 빚어낸 문명자체의 근원적 변화를 꿈꾼다. 여기에 바로 동학의 원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다.

4. 해월 최시형과 동학의 발전

19세기 후반 조선 민중들 사이에서 '최보따리' 선생이란 애칭으로 널리 알려진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은 1827년 3월 27일 지금의 경주시 황오동에

일기: 1080102 (1884년 1월 2일)

서 태어났다. 그는 조실부모(早失父母)하고 일찍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와 종이 공장 직공으로 일했다. 이처럼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고달픈 나날을 보내던 그가 동학에 들어간 때는 동학 교조 수운 최제우가 본격적으로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한 해인 1861년 6월이었다. 해월의 동학 입교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첫 사건이 되었다. 그는 1861년에 동학에 입도한 이래 수운의 사후 동학의 도통 계승자가 되어 1898년 4월 5일(음) 관병에게 체포되고, 이어 음력 6월 2일에 처형되기까지 38년 동안 동학 교단을 지켜온 핵심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교조 수운이 동학의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 지 불과 3년 여 만에 체포되어 처형된 이후, 꺼져 가던 동학의 도통을 살린 것은 물론, 조선왕조 및 지방관의 탄압 아래에서도 동학 교리의 체계화, 동학 조직의 재건과 지역적 기반의 확대, 동학 경전의 집성, 동학의 각종 제도와 의례의 제정, 정기적 수련제도의 실시를 통한 지도자의 양성 등 동학 교단의 모든 사업들이 그의 손을 거쳐 이룩되었다. 그러기에 그를 일러 동학의 '사도 바울'이라 부르는 것이다.

또한,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古阜)에서 시작되어 1년여 동안 조선 전역을 뒤흔든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도 농민군 봉기의 조직적 기반은 바로 해월의 손에 의해 이룩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삼남 지방 일대의 동학 접포(接包) 조직이 그 근간이 되었으며, 봉기를 주도한 각 지방의 핵심 인물들 역시 해월로부터 직·간접적인 지도를 받고 성장한 동학 접주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동학 교단사(敎團史) 및 동학농민혁명사(東學農民革命史)에서 해월의 역할을 빼놓고서는 온전한 논의가 불가능함은 물론, 한국근대사(韓國近代史)에 있어서도 해월의 생애와 사상, 역할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할 중요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학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자나 한국근대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3년여의 활동 끝에 처형된 동학교조 수운과 1890년대 초반 동학접주가 되어 갑오동학농민혁명을 앞장서 주도했던 전봉준(全琫準, 1855~1895)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동학 조직을 이끌어온 해월에 대하여는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치해왔다. 해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남긴 소수의 연구자들마저도 동학농민봉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전봉준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전봉준의 거사를 비난하고 봉기 그 자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해월은 '비겁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는 데 앞장 서 왔다. 그 결과 해월은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역사 발전의 방향을 거스른 '반동적(反動的)' 인물로 각인되어 버렸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국민들은 누구도 그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해월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40여년에 걸친 '도망자'생활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어지거나 흩어져 버린 때문이며, 둘째는 동학하면 최제우와 전봉준이요, 생활사 속에서 민중들에

게 끼친 동학사상과 동학교단의 역할에 대한 관심보다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며, 셋째는 갑오년 이후 지속된 탄압 속에서 해월의 역할이 종교적으로 윤색되거나 신비화되어 민중들의 품에서 특정 교단의 교조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해월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지나간 시대에 “저 높은 하늘로 신이 되어 올라가 버렸던” 그를 우리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한 인간”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근대의 대격동기에 처하여 당대 민중들의 고뇌와 역사적 과제를 어깨에 짊어진 채 민중들의 절절한 원망과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가려 했던 “인간으로서의 최시형”의 적나라한 모습을 역사 위에 정당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해월 사상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1860년대 성립된 동학의 핵심 사상은 무엇보다도 ‘시천주(시천주)’ 사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 모두가 자기 안에 ‘거룩한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천주’ 사상은 해월에 의해 실천적으로 해석되고 확대 발전되는데, 그것은 바로 ‘천지만물 막비시천주’ 즉 천지만물이 모두 거룩한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생명사상이다. 사람만이 ‘하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가 바로 ‘하늘님’이라는 사상이다. 어린이도 하늘님이요, 떠느리요 하늘님이요, 날아가는 새도 하늘님이요, 들에 핀 한송이 꽃도 하늘님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으로 발전하며, “천지즉부모(天地即父母)요 부모즉천지(父母即天地)니 천지부모는 일체야”라 하여 자연 환경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해월은 특히 머슴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사인여천’을 유일한 설법의 주제로 삼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귀빈천과 로소남녀와 적서노주의 별을 타파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리하여 해월은 양반들 중의 서열(庶孽)들과 중인·평민·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신분제타파와 평등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게 된다. 1860년대 후반 경상도 영해 영덕 일대의 새로운 신분 상승 세력, 이른바 신향(新鄕)들이 대거 동학에 가담하였다가 구향들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1871년 3월 이필제와 함께 병란을 주도하였던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1891년 해월이 백정 출신으로 알려진 남계천(南啓天)을 호남좌우도 편의장이라는 중책에 임명하였을 때 호남지방 16포 교도대표들이 불복하자 그 대표자격인 김낙삼(金洛三)을 불러 준절히 꾸짖으며 ‘비록 출신이 낮고 미미할 지라도 두령의 자격이 있으면 그 지휘를 따라 도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옳다’라고 역설한 사실 등은 해월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의 하나이다.

해월은 40여년에 걸친 긴 세월동안 도망자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기 전 날까지도 짚신을 삼으며 노동하기를 즐겨했다.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그만 쉬시라’ 하면 ‘하늘님이 쉬는 것을 보았느냐’하면서 나무를 심고, 짚신을 삼고, 새끼 꼬는

일을 계속하였다. 또 베를 짜는 머느리를 향해 ‘그가 바로 하늘님’이라 강조하였다. 이것을 일러 ‘일하는 하늘님’사상이라 하겠는데, 현대적 표현을 빌린다면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진정한 노동해방을 역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노동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전혀 착취당함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되돌려지는 하늘님의 노동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노동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해월은 또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알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밥’ 사상을 널리 드러냈다. 건강한 밥 한 그릇은 바로 우주 대자연과 미물곤충들, 그리고 인간에 의한 대협동(大協同)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그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속에 진리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후천개벽의 시운이 무르익어가는 이 때,이제 우리는 해월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인멸된 사료 때문에, 그리고 억압된 세상 때문에 철저히 왜곡된 채 알려진 해월을 온당하게 복권시키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의 몫이 아닐 수 없다.(2011년 4월 8일 탈고)

발표문 3

교조신원운동기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

노용필(한국사학연구소)

교조신원운동기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

盧 鏞 弼((韓國史學研究所))

1. 緒言
2. 主導勢力 成長의 求心力
3. 主導勢力 成長의 原動力
4. 主導勢力 成長의 擴張力
5. 結語

1. 緒言

東學敎徒들은 敎祖 崔濟愚의 억울함을 풀어서 東學을 公認받고자 하여 敎祖伸冤運動을 전개하였는데, 1892년 10월 충청도의 公州집회와 11월 전라도의 參禮집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이듬해 2월 景福宮 앞에서의 이른바 伏閤上疏를 통해서조차도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 3-4월에 충청도 報恩집회를 열었다.¹⁾ 그리고 이 報恩집회에 때맞추어 호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집회가 전라도 金溝에서 열렸으며, 이 金溝집회를 통해 장차 東學農民革命을 주도하게 될 全琫準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

이들은 곧 全琫準·金開男·孫化中·金德明·崔慶善 5인으로 이른바 ‘남접 5대 지도자³⁾’ 혹은 ‘5대 지도자⁴⁾’로 손꼽히는 인물들로서, 1894년 ‘농민봉기의 최상층 지도부⁵⁾’ 또는 ‘동학농민전쟁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한 주도집단 내지는 지도집단⁶⁾’으로 일컬어지

1) 趙景達, 『朝鮮民衆運動の展開：士の論理と救濟思想』, 岩波書店, 2002; 허영란 옮김, 『민중과 유토피아: 한국 근대민중운동사』, 역사비평사, 2009, p.115.

2) 박맹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개관」,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9, p.248.

3) 이이화, 「지도부는 이렇게 형성되고 통합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서경문화사, 1997, p.9.

4) 趙景達, 『異端の民衆反亂：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998; 박맹수 옮김, 『이단의 민중반란: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사, 2008, p.145 및 趙景達 지음, 허영란 옮김, 앞의 『민중과 유토피아』, 2009, p.114.

5) 박찬승, 「1894년 농민봉기와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앞의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1997, p.21.

6) 장영민, 「주도집단의 형성」,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景仁文化社, 2004, p.599에, “... 동학농민전쟁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한 주도집단 내지는 지도집단의 존재는 분명히 확인된다. 즉 제1차 봉기 후에 최초로 쓰이기 시작한 ‘남접’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전봉준, 서인주, 김개남, 최경선, 손화중 등 저명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894년 무력투쟁뿐 아니라 1892년 신원운동도 주도하였던 동학교도였다”고 서술하였음이 참조되는데, 다만 이 대목에서 김덕명을 제외시키고 대신에 서인주를 꼽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고 있다. 이들을 이처럼 ‘지도자’, ‘지도부’, ‘지도집단’ 혹은 ‘주도집단’ 이라고 일컫기 보다는 ‘主導勢力’ 이라고 함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어,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들의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求心力·原動力·擴張力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더듬어보려고 한다.

2. 主導勢力 成長의 求心力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에는 血緣的 親近性, 身分的 類似性, 地域的 緣故性, 思想的 同質性 등이 주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도세력 상호간에 親戚 혹은 姻戚 관계가 있어서 즉 血緣的 親近性으로 인하여, 그리고 身分이 비록 兩班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한 같은 殘班으로서 平民과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身分的 類似性으로 이들의 세력적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동일한 지역의 거주자이거나 예전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친분에서 오는 地域的 緣故성과, 학문으로서 儒學을 신봉하는 思想的 同質性 역시 이들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에 간과할 수 없는 求心力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主導勢力 成長의 이러한 求心力의 成分 가운데 첫째로 血緣的 親近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예의 하나로 全琫準과 후일의 全州 執綱所의 都執綱 宋熹[喜]玉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全琫準供招」의 다음 기록 중 全琫準이 직접 진술한 바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답 : 宋喜玉의 건은 비록 속여서 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처음부터 한 마디 말도 꾸미고 속인 것이 없었다, ...
 문 : 송과 너와는 戚分이 안되는가?
 답 : 妻族七寸이다⁷⁾

이는 全琫準이 宋熹玉에 관해 僞證을 한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꾸미고 속인 것이 없다고 강변하다가 결국에는 宋熹玉과의 친분이 妻族 7寸의 姻戚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봉준과 송희옥 사이의 血緣的 親近性이 전봉준과 송희옥의 밀착을 가져와 이들이 주도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예와 유사한 경우로서 金開男의 泰仁 지방에서의 세력 형성 과정을 들 수 있겠는데, 黃玆 『梧下記聞』 「二筆」 에 이와 관련하여 “箕範의 집안은 태인 지방에서 몇 대에 걸친 토호였던 까닭에 그 지방 사람들은 이들 집안을 ‘道康 金氏’ 라고 불렀다. ... 기범의 사람됨은 음험하면서도 의지가 굳은 면이 있어 자못 무력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였다. 그리하여 난이 일어났던 초기에 그 집안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따라 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도강 김씨 중에 접주가 24명이나 되었다. 기범은 자기 스스로 ... ‘開南’ 으로 호를 삼았다⁸⁾” 고 한 대목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金開男의 道康 金氏 가운데 接主가 24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血緣的 親近性이 역시 主導勢力 成長의 求心力이 되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는 것이라 해서 지나치지 않겠다.

둘째로 身分이 비록 兩班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한 같은 殘班으로서 平民과 다를 바

7) 全琫準供招 第3招; 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 鄉土文化社, 1980 : 再版, 1983, p.306.

8) 黃玆, 『梧下記聞』 起甲午五月, p.43; 김중익 옮김, 「二筆」,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p.179

가 없는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하여 형성되게 된 身分의 類似性 또한 주도 세력의 성장에 크게 보탬이 되었을 것임을 쉬이 想定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더더군다나 殘班인 全琫準 등이 당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平民과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兩班으로서의 의식을 벗어버리고 기꺼이 平民들과 相扶相助하는 생활을 결코 멀리 하지 않았다고 함은, 일본인 菊池謙讓이 훗날 古阜의 노인에게서 들은 바를 적어 놓은 데에서, “마을 사람과 섞이지 않고, 가끔 마을에 경조사가 있으면 그는 절하여 축하하고 찾아가 조문했다⁹⁾” 고 했다는 대목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스스로 양반 의식을 벗어버리고 平民들과의 身分의 類似性을 견지함으로써¹⁰⁾ 全琫準 등 동학농민혁명의 주도세력은 세력 확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럼으로 해서 신분적 유사성 표방이야말로 이들의 세력 성장에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엿보인다.

셋째, 地域的 緣故性에 관해서는 參禮集會 시기부터 전봉준·김개남·최경선·손화중 등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여 함께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을 이끌고 교단의 지시와는 달리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으며¹¹⁾, 이들은 늦어도 1893년 12월의 제2차 공주집회 이후부터는 함께 활동을 벌일 정도로 밀접한 교류가 있었는데, 정음·태인·고부 등지 곧 현재의 井邑市 일원이 이들의 거주지였다는 점¹²⁾이 세력 성장에 크게 보탬이 되었을 것임이 간과될 수 없다. 특히 全琫準과 崔慶善과의 밀착에는 同鄕으로서의 친분이 깃들여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사실에 대해 全琫準 자신이 밝힌 바는 다음과 같다.

문 : 너는 崔慶善과 서로 친한 것이 몇 년이나 되는가?

답 : 同鄕이므로 서로 친한 것이 5·6년이나 된다.

문 : 일찌기 崔가 너에게 師의 分이 있는가? 없는가?

답 : 다만 親舊로서 相從할 뿐이지 가르침을 받는 일은 없다¹³⁾

崔慶善은 吳知泳의 『東學史』에서도 ‘泰仁 頭領’으로 지칭되고 있었으며¹⁴⁾, 全琫準·金開男도 泰仁에서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으므로¹⁵⁾ 이들은 同鄕이라고 하겠다.¹⁶⁾ 그리고 이러

9) 菊池謙讓, 『近代朝鮮史』 下, 1937, p.216; 趙景達 지음, 허영란 옮김, 앞의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2009, p.116 참조

10) 박찬승, 앞의 「1894년 농민봉기와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앞의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1997, p.29. 특히 다음의 구절이 주목된다.

“전봉준·손화중·김개남·김덕명 등 농민봉기의 주요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향반의 후예가 많았지만, 19세기 말의 시점에서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평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수령-이향지배체제에 밀린 실세한 향반 가문에 속해 있었거나, 그들 가문이 어느 정도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직계는 자기 가문 내에서도 방계에 속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여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양반, 곧 ‘명목상의 향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양반으로서의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른바 ‘殘班’의 처지에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양반’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객관적으로도 이미 양반지배층의 대열에서 탈락한 이들이었고, 주관적으로도 양반이라는 지배계급으로부터 벗어나 평민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한 ‘혁신적 지식인’이었다”

11) 裴亢燮, 「동학의 확산과 反侵略·敎祖伸冤 運動의 전개」,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景仁文化社, 2002, pp.146-147.

12) 裴亢燮, 「古阜民亂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앞의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2002, p.253.

13) 「全琫準供招」第5招; 崔玄植, 앞의 『甲午東學革命史』, 1983, pp.327-328.

14) 吳知泳, 『東學史』, 永昌書館, 1940, p.111; 『吳知泳全集』 上, 亞細亞文化社, 1992, p.133.

15) 全琫準이 泰仁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은 그 스스로가 「全琫準供招」 初招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다.

“문 : 너는 泰仁 땅에서 居生했는데 어찌하여 古阜에서 기요했는가? / 답 : 泰仁에서 살다가 古阜로 이사한 지 수년이 되었다.

문 : 그런 즉 古阜에는 너희 집이 있는나? / 답 : 불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崔玄植, 앞의 『甲午東學革命史』, 1983, p.277.

한 地域的 緣故性으로 말미암아 黃玿의 『梧下記聞』 「二筆」의 기록에, “적이 지난 날 古阜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그 우두머리들은 泰仁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까닭에 全羅左·右道에서 泰仁接은 접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대를 받았으며, 다른 지역의 접주들은 모두 태인이라는 호칭을 부러워하였다¹⁷⁾” 고 묘사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金開男의 집은 태인 지금실에 있었는데, 현재의 행정구역명으로는 井邑市 山外面 東谷里 지금실이다.¹⁸⁾ 여기에다가 孫化中은 井邑 科橋里 胎生으로 그가 이끈 苞의 명성을 따를 접주가 없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영향력이 컸는데, 처음에는 全琫準의 봉기 제안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 1894년 3월 白山集會에 동참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게 되므로,¹⁹⁾ 이들의 이런 지역적 연고로 인해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잡자면 곧 井邑市가 東學農民革命 주도세력의 중심 활동 근거지였다고 보는 게 옳겠다.

地域的 緣故性이 주도세력 성장의 성분 중의 하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예로서 주목되는 것은 黃玿의 『梧下記聞』 「二筆」에서 거론한 古阜 출신으로 求禮에 거주하던 儒生 宋鎮彦의 행태이다. 즉 “古阜 儒生에 宋鎮彦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求禮에 살고 있었다. 그는 … (全)琫準과 더불어 서로 친하게 지냈다. 이때 이르러 (全)琫準을 따라 入道하여 자칭 執綱所 糾察에 관한 인장과 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을에서 우쭐거렸다” 고 하였는데, 이렇듯이 宋鎮彦은 古阜 출신으로서 求禮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全琫準과의 친밀한 교분을 잇고 있었음으로 해서 執綱所의 간부를 맡게 될 정도로 全琫準의 세력 확장에는 地域的 緣故性이 결코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넷째, 思想的 同質性 역시 주도세력의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求心力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데, 古阜蜂起를 주도한 全琫準 등 3인이 士族으로서 儒學을 사상적 터전으로 동일하게 삼았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여겨진다. 把溪生이라는 日本人이 듣고 남긴 당시에 관한 기록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두령이란 全明叔·鄭益瑞·金某 세 사람이다. 명숙은 상관이고 다른 두 명이 그를 보좌하는 듯하다. … 다른 두 사람은 그 지방의 士族으로 鄭은 글을 배웠다. 세 사람은 젊어서부터 친구이며, 사건[고부봉기]를 일으킨 시초부터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이 세 명의 수중에 속했다.

이들 3인이 젊어서부터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점이 士族으로서 儒學을 공부하였다는 데에 있었고, 그래서 고부봉기를 주도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儒學이 사상적 터전임을 기록을 남겨 여실히 드러낸 것은 바로 全琫準이었다. 즉 그는 후일 체포되어 審問을 받는 도중 “너는 평소 어떠한 학문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서슴지 않고 “孔孟의 학을 닦았다²⁰⁾” 고 당당히 밝힐 정도였던 것이다. 더더군다나 全琫準이 직접 작성한 글로 전해지는 것들 가운데 이러한 아래의 대목에서 더욱 이런 면모가 그대로 풍긴다.

16) 崔玄植, 「人物志」, 앞의 『甲午東學革命史』, 1983, p.240 및 표영삼, 「김덕명·손화중·최경선 행적」, 앞의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1997, p.207.

17) 黃玿, 앞의 『梧下記聞』, p.43; 김중익 옮김, 앞의 『번역 오하기문』, 1994, p.179.

18) 표영삼, 앞의 「김덕명·손화중·최경선 행적」, 1997, p.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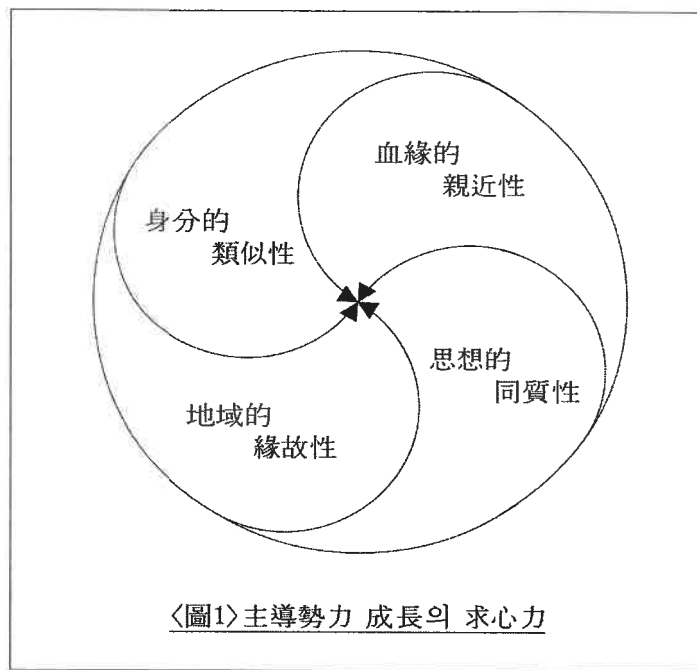
19) 崔玄植, 앞의 『甲午東學革命史』, 1983, pp.53-59 및 崔孝軾, 「1894년 집강소의 설치와 그 운영」, 『東學研究』 13, 2003, p.8 참조.

20) 「東學大巨魁審問續聞」,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강창일,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전봉준 회견기 및 취조기록」, 『사회와 사상』 창간호, 한길사, 1988, p.261.

「東徒의 書狀」 2

하늘과 땅 사이에 나라가 매우 많고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 五倫으로 시작하고 三綱으로 법을 삼으니 不忠, 不義, 不孝, 不悌者는 그 사이에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까닭에 聖人은 천하를 차별없이 모두 같이하여 비록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모두 敎化의 동산에 넣어서 三綱五倫을 잘 지키도록 한다. 이와 같은 즉, 천하의 모든 사람이 형제이다²¹⁾

東學의 主導勢力은 敎祖伸冤運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敎徒들을 동원한 논리도 기존의 儒學的 가치와 윤리에 의존한 바가 컸었는데,²²⁾ 특히 이렇듯이 全瑋準이 三綱五倫을 강조하면서 유교적 측면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으므로, 1894년의 제1차 봉기 때에는 ‘유교적 충군·애국·애민사상에 바탕을 둔 개혁사’로서 부패한 정권에 대항하여 곁기했던 ‘의사’ 내지 ‘지사’로, 제2차 봉기 때는 일본군을 내쫓기 위한 ‘최초·최대의 걸출한 의병장’으로 평가하려는 시도²³⁾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할지언정 全瑋準이 東學에 입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므로 東學徒이면서도 학문으로서는 儒學的인 측면이 여전히 강하였음을 드러낼 뿐이었다고 하겠으며,²⁴⁾ 이와 같은 儒學 중심적 사상 경향이 全瑋準이 앞장서서 각지를 방문하면서 세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며,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思想的 同質性 역시 전봉준을 위시한 주도세력의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求心力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서 좋지 않나 한다.



21) 「馬嘶劍鳴錄」 제7회, 『二六新報』 1894년 8월 15일자; 강창일, 앞의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1988, p.255.
 22) 장영민, 「신원운동」, 앞의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2004, pp.174-175.
 23) 柳永益, 「보수적 개혁가·의병장 전봉준론」, 『근현대사강좌』 5, 1994, pp.158-171.
 24) 盧鏞弼, 「잔반 전봉준, 동학도를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열려 하다」, 『개화기 지방 사람들』 2, 어진이, 2006; 『韓國近現代社會思想史探究』, 韓國史學, 2010, pp.176-177.

3. 主導勢力 成長의 原動力

한편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에는 經濟的 同等性, 社會的 同類性, 構造的 活用性, 宗教的 合一性 등이 불가결의 요소로서 개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도세력 상호간에 실제로 窮乏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經濟的 同等性이, 혹은 그보다는 좀 나은 형편이었다고는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차별을 개혁을 통해 극복하려는 생각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經濟的 同等性 追求라는 공통점이 이들의 세력 성장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동일한 향촌사회에 거주하면서도 그 이전에는 거주 향촌에서 거의 主導的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던 이들의 결합이 자신들의 세력적 성장을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는 견지에서 社會的 同類性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세력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고 가늠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세력이 향촌사회에서 예전과 같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로서는 舊來의 향촌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조직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택했기 때문으로, 구체적으로는 執綱所의 執綱 등을 활용한 것이었는데, 이는 構造的 活用性이라고 할 수 있을 듯싶다. 또한 이들은 학문으로서는 儒學을 신봉하면서도 종전의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 宗教的으로는 東學에 심취함으로써 宗教的 合一性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에 결정적인 原動力의 한 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아려진다.

主導勢力 成長의 이러한 原動力의 成分 가운데 첫째로 經濟的 同等성과 관련하여서는, 1894년 東學軍이 제시하였다고 하는 소위 「폐정개혁안 12개조」에 근거하여 그 가운데 애초부터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事”이라는 조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平均主義’를 거론함이 참고가 된다.²⁵⁾ 하지만 吳知泳이 1924년부터 저술하기 시작한 草稿本 및 1940년에 출판한 刊行本 『東學史』에만 유독 수록되어 있는 ‘土地의 分作’條目은, 東學軍 執綱所의 「弊政改革案」 자체에 포함되어서 실제로 행해졌던 토지 개혁 정책이라기보다는 吳知泳이 1926년부터 1935년경까지 감행하였던 滿洲 집단 이주를 통해서라도 그토록 革新的으로 실현해보고자 했던 그 자신의 토지 개혁 방안이었던 것으로 推察된다.²⁶⁾ 또 당시에 주도세력들이 이와 같이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할만한 여건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이러한 통일적인 방침을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²⁷⁾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 주도

25) 趙景達 지음, 박맹수 옮김, 앞의 『이단의 민중반란』, 2008, pp.222-224에서 이러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趙景達 지음, 허영란 옮김, 앞의 『민중과 유토피아』, 2009, p.118에서는 “평균주의와 평등주의를 실현해가고자” 라든가 p.119에서는 “평등과 평균의 논리가 관철되는 유토피적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었다” 라든가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26) 盧鏞弼, 「吳知泳의 人物과 著作物」, 『東亞研究』 19, 西江大 東亞研究所, 1989; 앞의 『『東學史』와 執綱所 研究』, 2001, pp.39-75. 이밖에 김태웅, 「1920·30년대 오지영의 활동과 《동학사》 간행」, 『역사연구』 2, 1993 및 조경달 지음, 박맹수 옮김, 앞의 『이단의 민중반란』, 2008, p.224 참조.

27) 박찬승, 「동학농민전쟁의 주체와 농민군의 지향」,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동학농민전쟁·항조·활빈당』, 景仁文化社, 2008, pp.309-310. 특히 다음과 같은 서술이 참고가 된다.

“토지문제에 관한 농민군의 지향점은 당시의 시점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전봉준이나 다른 농민군 지도자들이 토지문제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오는 ‘토지의 평균분작’ 조항을 농민군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1894년의 여름의 시점에서 농민군은 아직 토지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할만한 여건에 있지 않았다. 중앙권력을 아직 장악하지 못하였고, 전라도 지방도 아직 농민군이 완전히 장악한 실정은 아니었다. 또 농민군의 참가층도 중 소지주·부농과 같은 요호부민으로부터 무전농민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농민군 내부에서

세력이 굳이 ‘平均主義’를 지향했다고 云謂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이를 통해 당시에 經濟的으로 同等해야 함을 표방했다는 점만은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주도세력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둘째로 꼽는 社會的 同類性이라고 함은, 소위 殘班으로서 그 거주 지역에서 종전에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던 측에 들던 이들이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전면에서 나서는 계기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거론하는 것이다. 巴溪生이 쓴 「全羅道古阜民擾」라는 제목의 다음 日記에 의거하면, 고부봉기의 주동자 전봉준 등의 3인 역시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경우였다고 판단된다.

頭領이란 全明叔·鄭益瑞·金某 세 사람이다. … 듣기로 세 명은 평소 변변치 못하여 家産을 다스리지도 못했다²⁸⁾

여기에서 이들이 “평소 변변치 못하여 家産을 다스리지도 못했다”고 함은 경제적으로 곤궁했음은 물론 당시 향촌 사회에서 별반 주도적인 구실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이들이 공히 殘班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풀이된다. 게다가 일본인 菊池謙讓이 훗날 古阜의 노인에게서 들은 바를 적어놓은 데에 전봉준에 대해서, “평생 집에서 마을 소년에게 童蒙을 읽히고 千字文을 익히게 했으며, … 사람이 없으면 종일 묵묵히 일어났다 누웠다 한다. 부모를 섬겨 봉양하지 않는 바가 없고, 집안은 빈곤했지만 농사를 알지 못했다²⁹⁾”고 한 것도 역시 이러한 측면을 입증해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殘班으로서의 이들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同類意識을 지니고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훗날 체포되어 全琫準이 審問받으면서도 宋熹玉과의 관계를 캐묻는 질문에 “별로 上下로 일컬을 만한 것이 없고 서로가 똑 같은 사람(齊等之人)이다”³⁰⁾고 답변하여 서로가 ‘齊等之人’임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음 역시 이러한 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黃玿의 『梧下記聞』 「二筆」에서 “적은 서로 대하는 예가 매우 공손하였으며 귀하거나 천하거나 늙고 어림이 없이 한결같이 대하였다(無貴賤老幼 一施之一). 비록 접주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남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적들은 정성껏 섬겼다³¹⁾”라고 있음에서 ‘無貴賤老幼 一施之一’ 하였음을 摘示한 바 역시 이러한 일면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주도세력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셋째로 構造的 活用性을 꼽아 마땅하다. 全琫準 등 주도세력들은 애초부터 향촌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조직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構造的 活用性은 그럼으로써 세력 성장의 原動力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전봉준 등이 활용하려 했던 향촌사회의 의사 결정 조직은 舊來의 執綱所 조직 가운데서도 특히 執綱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日本人 巴溪生의 現場日記 「全羅道古阜民擾」 중에서 아래와 같은 대목이 주목된다.

도 토지문제에 관한 통일적인 방침을 채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농민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빈농층의 경우 ‘균전’과 같은 근본적인 토지개혁을 지향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지도부는 아직 그러한 욕구를 조직화할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2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1, p.56.

29) 菊池謙讓, 『近代朝鮮史』 下, 1937, p.216; 趙景達 지음, 허영란 옮김, 앞의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2009, p.116 참조

30) 『全琫準供招』 第3招; 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 郷土文化社, 1980: 再版, 1983, p.304.

31) 黃玿, 『梧下記聞』, p.97; 김종익 옮김, 앞의 『번역 오하기문』, 1994, p.232.

3명[全琫準·鄭益西·金道三] 다 같이 젊어서부터 친구로서, 사건[古阜蜂起]을 일으킨 시초부터 대소의 일이 모두 이 3명의 수중에 속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책임을 자신에게만 한하지 않고 각각 마을의 洞長·執綱들에게도 모두 다 같이 책임을 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一朝에 실패할지라도 18개 區面의 洞長·執綱이 곧 같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백성들도 함부로 退散하거나 혹은 嫌厭을 생기게 할 수가 없어 단결도 한층 견고한 듯하였다³²⁾

이를 통해 全琫準 등이 각 마을의 洞長·執綱을 끌어들이어 공동으로 봉기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동학군내의 단결을 견고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학군의 봉기로 설치된 執綱所의 執綱 역시 朝鮮 後期 이래로 鄉村社會에 있어왔던 그것을 활용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겠다. 이는 소위 「沙鉢通文」의 첫 부분에서 “癸巳 十一月 日 各里々執綱 座下”라고 하여서 全琫準 등의 주도세력이 이미 1893년 古阜蜂起 단계에서부터 各里의 里執綱을 활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1894년 5월초 全羅監司 金鶴鎭과 全琫準 사이에 맺어진 이른바 全州和約 이후 金鶴鎭이 5월 22일에 하달한 「曉諭文」에서 아래와 같이 지시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대들이 完山(府)로부터 해산한 것은 뜻을 말하자면 (걱정을 풀고) 농사로 돌아가 각자 예전부터의 업으로 돌아가고자 함이다. … 그대들이 거주하는 곳인 面·里에 각각 執綱을 두었으니, 그대들이 원통하고 억울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 執綱을 경유하여 營門에 소송해서 공정한 결정을 기다려라³³⁾

즉 金鶴鎭이 全州 監營으로부터 자진 해산한 후에도 東學軍들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연을 각 面·里的 執綱을 경유하여 監營에 보고하여 공정한 결정을 기다리도록 이와 같이 지시한 것은, 결국 東學軍 執綱所에서의 執綱의 역할이 종래의 향촌 사회에서 그것이 하던 역할 거의 그대로이었음을 알려준다고 하겠다.³⁴⁾ 한마디로 全羅監司 金鶴鎭의 지시와 그에 따른 執綱所 설치의 허용을 기화로, 동학군측에서는 집강소의 설치를 확대해 나갔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동학군의 집강소에 대한 公認이 이루어진 것은 6월의 일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태의 추이를 목격한 바 있던 鄭碩謨가 남긴 「甲午略歷」 중 다음에서 이를 여실히 알 수 있다.

6월에 觀察使는 全琫準 등을 감영에 청하여 맞았다. 이때에 성을 지키는 군졸이 각각 총과 칼을 들고 좌우로 정렬하였다. 전봉준은 높은 冠에 삼베옷을 입고 기세도 드높게 들어와 조금도 꺼리거나 주저함이 없었다. 觀察使는 官과 民이 서로 화합할 방책을 상의하고는 각 郡에 執綱을 두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東(學)徒는 각 邑에 할거하여 公廩에 執綱所를 설치하였다³⁵⁾

1894년 6월에 觀察使 金鶴鎭이 全琫準을 全州監營으로 맞아들이 서로 ‘官과 民이 서로

32) 앞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81, p.56.

33) 『隨錄』, pp.38-39;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pp.47-48 참조.

34) 盧鏞弼, 「東學農民軍의 執綱所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133, 1992; 同改題 「東學軍의 執綱所에 대한 一考察」, 『《東學史》와 執綱所 研究』, 國學資料院, 2001, pp.159-162. 이러한 執綱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趙景達 지음, 박맹수 옮김, 앞의 『이단의 민중반란』, 2008, p.206에서 “관찰사에 대한 직소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집강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조선 후기 面里制에 이미 존재하던 집강이란 직책에 농민군 출신이 우선적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記述하고 있음이 참조된다.

35) 『東學亂記錄』 上, 國史編纂委員會, 1971, p.65;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 2009, p.79 참조.

화합할 방책(官民相和之策)’을 의논하고는 각 邑에 執綱을 두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執綱所 설치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동학군측에서는 곳곳에 執綱을 정해서 執綱所를 설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관리들의 弊政을 시정하려고 했다.³⁶⁾ 집강소가 이렇듯이 설치·공인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단계별 변화 상황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여 보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집강소의 단계별 변화³⁷⁾

단계	시점	계기	변화 내용
1	5월 8일	全州和約의 성립	집강소의 설치 및 확산
2	6월 (초순)	金鶴鎭과 全琫準의 제1차 全州監營會談	집강소에 대한 정부의 公認
3	7월 6일-8일	金鶴鎭과 全琫準의 제2차 全州監營會談	집강소의 기능 강화 : 치안 유지 담당
4	9월 3일	大院君의 曉諭文과 密使의 도착	全州 大都所의 철수, 제2차 봉기 이후 전투 수행에 중추적 역할

물론 같은 시기에 동학농민군에 반감을 품고 적대적인 태도를 표방하는 反東學農民軍측에서도 기왕에 여전히 있어왔던 집강소를 활용하여 향촌 사회에서의 경험과 慣例를 기반으로 결집을 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이들도 역시 집강소라는 조직을 활용하고 있었음이 사실이었다.³⁸⁾ 그렇다고 해도 全琫準이 1894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관찰사 김학진과의 全州監營會談³⁹⁾을 통하여 집강소의 설치를 공인받고 그 기능도 강화하였다는 것 역시 사실이었으며, 이와 같이 舊來의 鄉村組織 執綱所를 동학농민군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도세력 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집강소의 기능과 집강의 역할을 활용하여 동학농민군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모습은, 巴溪生이 전한 現場日記「全羅道古阜民擾」가운데 “수령(7명 중 우두머리는 全某, 그 외는 아직 미상)이 먼저 朝堂에 들어가서 심부름꾼을 보내 吏部와 기타 악정에 조력한 자들을 소환하였고 오지 않는 자는 잡아들였다. 진영은 정숙하였고 호령은 명석하였으며 여느 반란군 같지가 않았다고 한다. 먼저 악정의 始末을 엄중히 조사하기 위해 매일 구류된 사람들을 국문하였다” 라고 쓰고 있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살펴진다.

주도세력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넷째로는 宗教的 合一性을 빼놓을 수 없겠다. 주도세력들

36) 盧鏞弼, 「집강소의 설치와 실제 운영」, 『집강소를 통해서 본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제35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 학술대회), (사)갑오농민혁명명계승사업회, 2002; 앞의 『韓國近現代社會思想史探究』, 2010, pp.124-127.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양식, 「전주화약 이후 ‘官民相和’와 집강소 운영」,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pp.147-148에서 “전봉준이 김학진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민군을 통제하고 도내의 치안과 행정을 돕는 대신에, 김학진으로부터 농민군 조직과 활동을 집강소를 매개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김학진의 입장에서는 농민군조직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 자치기구화한 다음 도내의 치안을 유지하려는 본래의 의도가 성공한 것이고, 전봉준 입장에서는 합법화한 집강소를 매개로 폐정개혁을 도정에 반영시켜 이를 감독·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음도 참고가 된다.

37) 盧鏞弼, 「東學軍의 執綱所 설치와 운영」, 『근현대사강좌』 5, 1894; 앞의 『《東學史》와 執綱所 研究』, 2001, p.210 참조.

38) 김양식, 「농민군도소의 설치와 그 이념-전주화약기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앞의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1996, p.211에서, “실제로 집강소는 농민군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경우에는 폐정개혁 기구로까지 기능을 확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수지배층이 주도하는 치안기구에 머물거나 잠재적인 농민군 토벌기구로 운영되었다. 이는 여러 지역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집강소는 해당지역의 농민군 대 반농민군 사이의 힘의 역학관계와 주도층의 계급적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기능이 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음이 이러한 측면을 잘 지적하고 있다.

39) 全琫準과 金鶴鎭 사이에 2차례에 걸쳐 全州監營會談이 있었다는 筆者의 持論에 대한 동의는 趙景達 지음, 박맹수 옮김, 앞의 『이단의 민중반란』, 2008, p.477 주석 23).

은 학문으로서는 儒學을 신봉하면서도 종전의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 宗教적으로는 東學에 심취함으로써 宗教的 合一性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에 결정적인 原動力의 한 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함이 옳겠기에 그러하다. 全琫準을 위시한 주도세력들의 이러한 면모를 살핌에 있어서 요긴한 기록은, 전봉준과 관련한 取材記事를 게재하면서 당시 日本新聞에서 아래와 같이 적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동학당의 조직」

동학을 보고 하나의 정당, 불평당이라고 하지 말라. 그들은 실은 하나의 깊은 학도, 아니 종교적 당파 푸리턴의 하등과 같은 자이다. 그들은 매일 최선생이 준 주문을 외고 仁義禮智를 간절히 장려한다. 주문에 말하기를 ‘待上帝造化永世不忘萬事知’ 라 한다⁴⁰⁾

이는 요컨대 동학을 현실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정당으로 보지 말고, 儒學의 토대를 갖춘 학도로서 仁義禮智를 강조하는 측면을 지니면서 한편으로는 崔濟愚가 준 ‘待上帝造化永世不忘萬事知’ 라는 呪文을 매일같이 외는 푸리턴과 같은 종교적 당파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일본인의 눈에 이렇게 비칠 만치, 全琫準 등은 東學教徒로서의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있었는데, 주도세력들이 어찌나 동학에 심취하고 있었나 하는 점은 아래의 진술에 잘 드러나 있다.

문 : 너와 同謀한 孫化中·崔慶善 등은 모두 東學을 대단히 좋아했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소위 東學이라는 것은 어떤 주의이며 어떤 道學인가?

답 : 守心하여 忠孝로 본을 삼고 輔國安民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 너도 역시 동학을 대단히 좋아하는 자인가?

답 : 동학은 이에 守心敬天의 道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한다⁴¹⁾.

이를 통해 주도세력들, 구체적으로는 全琫準을 위시해서 孫化中·崔慶善 등이 東學을 ‘酷好’ 했는데, 그것은 동학의 ‘守心敬天’ 을 따르면서 ‘輔國安民’ 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기 어렵지 않다.⁴²⁾ 따라서 함께 東學에 심취한 宗教的 合一性이야말로 주도세력 성장의 原動力의 한 성분으로서 不可缺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며, 그러므로 이들을 ‘사이비 동학도’ 로 파악하고 혹은 그래서 ‘東學外皮論’ 을 내세울 수는 없다고 하겠다.⁴³⁾

40) 「馬嘶劍鳴錄」 제6회, 『二六新報』 1894년 8월 12일자; 강창일, 앞의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1988, p.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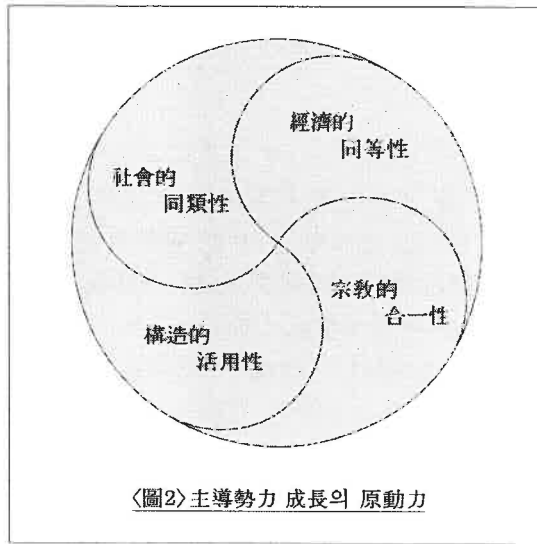
41) 「全琫準供招」 再招; 崔玄植, 앞의 『甲午東學革命史』, 1983, p.292.

42)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全琫準이 審問 과정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음도 참고가 된다.

“문 : 동학에 언제부터 관계했는가? / 답 : 3년 전부터.

문 : 어떠한 것에 감동해서? / 답 : ‘보국안민’ 이라는 동학당의 주위에 감동하고 있던 바, 동학인 金致道라는 자가 나에게 동학의 문건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중에 ‘敬天守心’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속에 ‘大體正心’ 이라고 하는 것에 감동해서 입당했다” 앞의 「東學大巨魁審問續聞」; 강창일, 앞의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1988, p.261. 여기에서 특히 ‘輔國安民’ 과 ‘敬天守心’ 외에 ‘大體正心’ 을 동학에 감동한 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43) 장영민, 「柳永益의 ‘복고적·보수적 의거론’ 비판, 앞의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2004, pp.617-624 및 盧鏞弼, 앞의 「잔반 전봉준, 동학도를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열려 하다」, 2006; 앞의 『韓國近現代社會思想史探究』, 2010, p.177 그리고 성주현, 「동학과 전봉준」,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pp.119-129 참조.



4. 主導勢力 成長의 擴張力

또 다른 한편으로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에는 理想的 一致性, 政治的 改革性, 組織的 調和性, 方法的 適合性 등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서 融合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東學을 통한 信仰의 一致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輔國安民을 실현하고 平等社會를 俱現하려 한 理想的 一致性은 이들의 세력 성장에 가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자신의 이상을 정치적으로 이루기 위해 지녔던 이들의 改革性은 民生 안정을 위한 民本思想에 터전을 두고 형성된 것이었기에 더더욱 위력을 지닐 수 있었음이 명료하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세력이 꾀하였던 南接과 北接의 調和 추구는 組織的 調和性을 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독단적인 권력의 행사를 꾀하지 않고 구성원 전체의 合議를 지향하는 태도를 취하였기에 이들은 方法的 適合性 역시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면들이 이들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 성장이 擴張하게 되는 데에 힘을 가중시켜주었다고 살펴진다.

主導勢力 成長의 이러한 擴張力 成分 가운데 첫째로 理想的 一致性和 관련하여서는 이들이 東學을 통한 宗教的 合一性을 바탕으로 輔國安民을 실현하고 平等社會를 俱現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거론되어야 마땅하겠다. 이러한 理想的 一致性은 이들의 세력 성장에 분명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 방금 앞서 살펴보았듯이 全瑛準이 「供招」再招 가운데서 東學이 ‘輔國安民’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자신도 孫化中·崔慶善과 더불어 “東學을 酷好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는 이유는 동학이 바로 ‘守心敬天之道’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자신이 日本 新聞記者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문: ‘正心한다’는 점은 동학당에 한한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달리 너의 입당을 재촉한 이유가 없는가?

답: 단지 마음을 바로한다는 것뿐이라면 물론 동학당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동학당의 소위 ‘敬天守心’이라는 主意에서 생각할 때는 正心 외에 ‘協同一致’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른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輔國安民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탓이다⁴⁴⁾

여기에서 ‘協同一致’의 뜻이 ‘敬天守心’에 포함되어 있기에 다름 아니라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고 하는 점을 眞率하게 吐露하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자 하는데, 더더군다나 “마음을 바른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輔國安民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탓”이라 했음에서 全瑋準이 어떤 이유에서 東學을 ‘酷好’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타의 주도세력과 어찌 그야말로 ‘結黨’해서 ‘輔國安民의 業’을 이루려고 하였는지를 的確하게 認知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全瑋準을 필두로 주도세력이 ‘協同一致’를 통해 ‘結黨’하여 궁극적으로는 ‘輔國安民의 業’을 달성하기 위해 革命에 投身하게 된 基底에는 바로 이러한 理想的 一致性이 굳게 着根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理想的 一致性을 바탕으로 주도세력의 성장은 擴張되었는데, 그 둘째 성분인 政治的 改革性은 主導勢力 자신의 이상을 정치적으로 이루기 위해 지녔으며 民生 안정을 위한 民本思想에 터전을 두고 平等을 지향하며 형성된 것이었기에 더욱 위력을 지닐 수 있었다. 이러한 平等주의 지향의 측면과 관련하여, 東學軍이 제시하였다고 하는 소위 「폐정개혁안 12개조」에 근거하여 그 가운데 애초부터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事”이라는 조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平均主義’가, 그리고 “七班賤人의 待遇는 改善하고 白丁 頭上에 平壤笠은 脫去할 事” 등의 조목들이 들어있다고 하여 ‘平等主義’가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마치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이 ‘平均主義’와 ‘平等主義’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주목된다.⁴⁵⁾

하지만 吳知泳의 『東學史』에만 유독 수록되어 있는 ‘土地의 分作’條目を 근거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이 굳이 ‘平均主義’를 지향했다고 거론할 수는 전혀 없으나, 그럴지라도 이들이 전반적으로 ‘平等主義’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들의 이와 같은 ‘平等主義’指向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잠시 거론하였던 바대로 全瑋準이 ‘齊等之人’을 강조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黃玟의 『梧下記聞』에서 東學徒들이 ‘無貴賤老幼 一施之一’하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摘記하고 있음에서 확연히 입증되는 바라고 믿어진다.

主導勢力 成長의 擴張力 셋째 성분으로서의 組織的 調和性 추구는 주도세력이 꾀하였던 南接과 北接의 調和에서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全瑋準이 「供招」再招 가운데서 “동학 가운데 南接·北接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구별하여 남·북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湖 이남은 南接, 湖中은 北接이라 일컫는다⁴⁶⁾”고 답한 데에서 南接과 北接의 구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南·北接 사이의 調和 試圖와 관련한 기록으로는 吳知泳의 『東學史』에 다음 것이 있다.

全瑋準은 곧 반가이 영접하는지라 吳知泳은 이어 南北接說을 꺼내었다. … 吳知泳은

44) 「동학수령과 합의정치」,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강창일, 앞의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1988, p.262.

45) 趙景達, 지음, 박맹수 옮김, 앞의 『이단의 민중반란』, 2008, pp.222-224에서 이러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趙景達 지음, 허영관 옮김, 앞의 『민중과 유토피아』, 2009, p.118에서는 “평균주의와 평등주의를 실현해가고자” 라든가 p.119에서는 “평등과 평균의 논리가 관철되는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었다” 라든가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46) 「全瑋準供招」再招; 崔玄植, 앞의 『甲午東學革命史』, 1983, p.295.

南北接 調和策을 이루고 湖南으로 回程할 때 海月先生이 이대로 내려가서 南北道接을 盡心調和하며 大道의 將來를 그릇되지 말게 하라 하였다⁴⁷⁾

吳知泳의 이런 기록 자체가 모든 게 자신 중심으로 진행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진실성에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⁴⁸⁾ 南·北接 갈등이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상과는 다르게 과장된 듯한 면도 있었을지라도 南·北接 調和가 추구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고 여겨지는데,⁴⁹⁾ 南·北接 사이의 이와 같은 調和 추구가 결국에는 결실을 맺어 1894년 제2차 봉기 때 南·北接이 함께 하게 된다. 따라서 組織的 調和性이 곧 主導勢力 成長의 擴張力 成分의 一翼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주도세력 성장의 擴張力의 하나로서 넷째로 들 수 있는 것은 方法的 適合性으로, 구체적으로는 ‘協議體’ 執綱所 運用을 통해 ‘協合’에 의한 ‘合議法’을 추구하고자 하는 점이라 하겠다. 앞서 상론하였듯이 1894년 6월에 觀察使 金鶴鎭이 全琫準을 全州監營으로 맞아들여 서로 ‘官과 民이 서로 화합할 方策(官民相和之策)’을 의논하고는 각 邑에 執綱을 두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執綱所 설치를 공인하게 되었고, 그러자 동학군측에서는 곳곳에 執綱을 정해서 執綱所를 설치하고는 관리들의 弊政을 시정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각별히 의미를 부여코자 하는 사실은, 그것의 실행 방법에 있어서 執綱所내에 별도의 의결기관을 두어서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각 接主들이 모여 그 執綱所의 현안들을 논의하여 처리하였던 점이다. 이는 다음의 기록에서 읽혀진다.

執綱所의 行政

이 때 全羅道 53州에 골골마다 執綱所가 아니 설립된 곳이 없이 一律로 다 되었었고 執綱所의 안에는 幾千名의 義軍이 護衛를 하였었고 行政에 있어서는 執綱이 主務로 十餘人의 議員이 있어 協議體로 組織이 되었었고, 또 都執綱 1人을 두어 全道의 代表가 되게 하였었고 기왕(에) 있던 大小官吏들은 오직 事務에 責任만을 맡게 하였었고 執綱所의 政綱은 이와 같다.⁵⁰⁾

吳知泳이 刊行本에서는 草稿本의 이 부분을 누락시켰다. 하지만 뒤에 나온 刊行本보다는 덜 운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執綱所의 운영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엿볼 수 있겠는데, “행정에 있어서는 집강이 주무로 10여인의 의원이 있어 협의체로 조직이 되었다”고 기록하였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執綱所내에 별도의 議事機關이나 議決機關이 있었던 게 아니라, 執綱所 자체가 接主들이 모여 당면한 문제들을 협의의 통해 해결해나갔던 하나의 協議體였다고 하겠다.⁵¹⁾ 이와 같이 집강소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전봉준이 훗날 체포되어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도 잘 우리나라온다고 생각한다.

오늘 법무아문에서 參議 李在正 씨가 主事 1명을 데리고 日本領事館에 와서 全綠豆의 취조를 했는데, 취조 중 日本 警部가 “네가 경성에 쳐들어온 후 누구를 추대할 생각이었

47) 吳知泳, 앞의 『東學史』, 1940, pp.137-139; 앞의 『吳知泳全集』 上, 1992, pp.159-161.

48) 盧鏞弼, 앞의 『吳知泳의 人物과 著作物』, 1989; 앞의 『東學史』와 執綱所 研究』, 2001, pp.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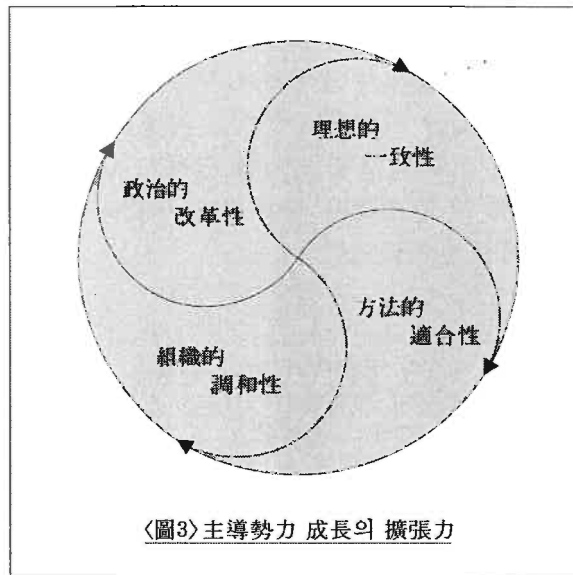
49) 장영민, 「최시형과 서장옥-남북접 문제와 관련하여」, 앞의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1997; 앞의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2004, pp.476-479.

50) 吳知泳, 『東學史』 草稿本 3, pp.41-42.

51) 盧鏞弼, 앞의 「잔반 전봉준, 동학도를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열려 하다」, 2006; 앞의 『韓國近現代社會思想史探究』, 2010, pp.165-166.

는가?”라고 묻자, “일본병을 물러나게 하고 惡奸의 관리를 축출해서 임금 결을 깨끗이 한 후에는 몇 사람 柱石의 선비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고 우리들은 곧장 농촌에 들어가 常職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국사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말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協合해서 合議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 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 좀 일을 알고 있다.⁵²⁾

이 기록에서 특별히 주목해 마땅할 대목은 “몇 사람의 명사에게 協合해서 合議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⁵³⁾” 이었다는 부분이다. 이는 곧 執綱所를 ‘協議體’로서 運用하고 이를 통해 ‘協合’에 의한 ‘合議法’을 추구하고자 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며, 이에 따라 全琫準이 方法的으로 適合性を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런 方法的 適合性이야말로 주도세력 성장의 擴張力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5. 結語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 성장의 求心力·原動力·擴張力은 각각이 個體的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서로 通涉하여 영향력을 상승시켰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컨대 求心力에 있어 血緣的 親近性·身分的 類似性·地域的 緣故性 그리고 思想的 同質性 등의 성분이 상호간에 有機的으로 기능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原動力에 있어서나 擴張力에 있어서나 각각의 성분들이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뿐더러 求心力의 血緣的 親近性和 原動力의 經濟的 同等性 그리고 理想的 一致性이 동일한 차원에서 相通하였으며, 이는 求心力의 身分的 類似

52) 앞의 「동학수령과 합의정치; 강창일, 앞의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1988, p.263.

53) 이 ‘協合’에 의한 ‘合議法’ 시행과 관련하여서, “議會가 설치된 체제 즉 ‘代議民主主義體制’였을 것으로 추측해 보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을 듯하다”는 견해(장영민, 앞의 「최시형과 서장옥-남북접 문제와 관련하여」, 1997; 앞의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2004, p.474)와 “전봉준은 ‘君主는 두되, 國事는 농민군이 인정하는 몇 사람이 合議하여 담당하는 君民共治의 정치형태(立憲君主制)’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이진영, 「전봉준·김개남의 정치적 지향과 전략」, 앞의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1997, pp. 186-187)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게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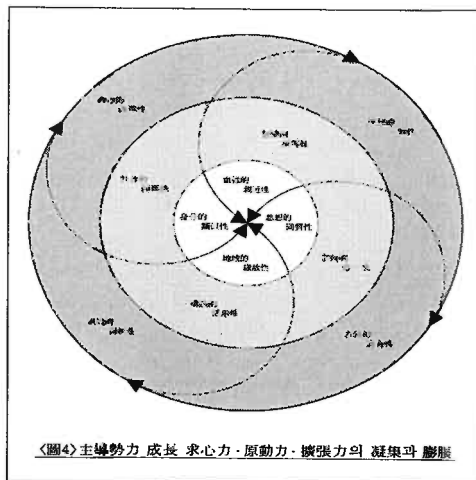
性和 原動力의 社會的 同類性 그리고 擴張力의 政治的 改革性도 같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긴밀히 주고받았으며 앞서 살핀 나머지 성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하였다고 믿어진다. 주도세력 성장의 구심력·원동력·확장력 성분의 이러한 통섭 상황을 표로 작성해보이면 다음의 <표 2> 主導勢力 成長 求心力·原動力·擴張力 成分의 通涉이다.

<표 2> 主導勢力 成長 求心力·原動力·擴張力 成分의 通涉

求心力	⇔	原動力	⇔	擴張力
血緣的 親近性	⇔	經濟的 同等性	⇔	理想的 一致性
↓		↓		↓
身分的 類似性	⇔	社會的 同類性	⇔	政治的 改革性
↓		↓		↓
地域的 緣故性	⇔	構造的 活用性	⇔	組織的 調和性
↓		↓		↓
思想的 同質性	⇔	宗教的 合一性	⇔	方法的 適合性

그리고 주도세력 성장의 구심력·원동력·팽창력 그 자체와 그 각각의 성분도 同時多發的으로 凝集과 膨脹을 함께 하여 融合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들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이 추구되기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주도세력 성장의 구심력·원동력·확장력의 凝集과 膨脹 상황을 圖로 작성하여 제시해 보이면, 아래의 <圖4> 主導勢力 成長 求心力·原動力·擴張力의 凝集과 膨脹과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全捧準을 爲始한 東學農民革命 主導勢力의 領導力 곧 리더십은 첫째 뚜렷한 목표의식을 지녀 民本思想을 實現하려고 하였으며, 둘째 合議 政治를 통해 목표를 理想的 體制 構想 실현에 설정해두었음은 물론이고 셋째 역할 分擔과 권한 委任으로써 현실적 방안을 강구 하였으면서도 넷째로는 목숨을 걸고 決然한 자신들의 의지를 體現하고자 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革命 追求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歸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淸과 日本의 군사력에 도저히 맞대응할 수 없을 지경으로 軍事的 측면이 제대로 갖추어져 뒷받침되어 주지 못한 脆弱性 때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발표문 4

고부봉기에서 백산대회까지

성주현(경기대학교)

고부봉기에서 백산대회까지

성주현(경기대학교)

1. 머리말
2. 사발통문에서 고부기포로
3. 고부에서 무장을 거쳐 백산으로
4. 백산대회에서 혁명군으로
5. 맺음말

1. 머리말

고부와 백산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으로 이미지되었다. 고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로서 알려졌으며, 백산은 동학농민혁명군으로서의 위상을 갖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와 백산은 일견에는 동학농민혁명과 약간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1894년 1월 10일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인 고부기포를 동학농민혁명과는 무관한 민란¹⁾ 내지 전 단계²⁾로서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고부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인 시점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³⁾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에 대해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맞물려 이 논쟁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부지역에 동학의 교세가 형성된 것은 대체로 1890년대 초로 추정된다. 우선 고부와 인접 지역인 태인에 동학이 처음으로 포교된 것은 1889년이였다. 현재 확인 가능한 인물로는 태흥리 梁應三과 공사리 李弘燁가 1889년 초에 각각 동학에 입교하였다.⁴⁾ 이후 1892년 삼례교조신원운동, 1893년 보은과 원평의 척왜양창의운동 때 호남지역에 동학이 크게 확산되었는데⁵⁾ 이때 고부에도 교세가 크게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 고부접주 전봉준의 연원주인 손화중의 활동으로 백산이 있는 고부를 비롯하여 무장, 고창, 정읍, 태인, 부안 등지에 이미 동학이 널리 포교되어

1) 이와 같은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김용섭, 「전봉준 공초의 분석」, 『역사연구』 2, 한국사학회, 1958 ;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I, 지식산업사, 2001; 유영익,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1998 등이 있다.

2) 이와 같은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장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등이 있다.

3) 이와 같은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 최기성, 『동학농민혁명운동 연구』, 서경, 2006 ; 조광환, 『소통하는 우리 역사』, 살림터, 2008 등이 있다.

4) 『천도교회월보』 164호, 30면 및 168호, 29면.

5) 표영삼, 「전라도 서남부 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 8, 천도교중앙총부, 2000, 1면.

있었다. 손화중은 21세 때인 1882년에 동학에 입도한⁶⁾ 후 부안, 정읍, 무장, 고창, 흥덕, 고부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하여 호남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학 조직을 형성하였다.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첫 기포를 한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폐정을 개혁하였으나 전주감영의 전봉준 효유 및 암살 실패와 관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백산으로 이진하였다. 이곳에 백산성을 축성하고 20여 일을 머물렀다. 또한 백산은 3월 20일 무장기포 이후 호남일대 동학농민군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백산에서 선언한 격문과 4대 명의, 그리고 12조의 기율은 동학농민군을 혁명군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하는 한편 이후 호남일대를 점령하고 마침내 전주에 입성하였다.

본고에서는 고부기포의 준비과정에서 무장기포, 그리고 백산대회까지를 시간적 흐름을 통해 초기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부기포, 무장기포, 백산대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발통문에서 고부기포로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는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비롯되었다.⁷⁾ 고부기포의 원인은 고부군수 조병갑과 전운사 조필영의 동학교인과 농민에 대한 수탈이었다. 전봉준은 조병갑의 수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고부의 동진강 상류에 만석보를 새로 수축하면서 농민들을 무상으로 동원할 때는 수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추수기에는 수세로 7백여 석을 착복하였다. 둘째, 진황지를 개간하면 일정기간 면세하다고 약속해 놓고 개간 후에는 추수기에 지세를 부과하였다. 셋째는 富民들에게는 불효, 음행 등 죄목을 씌워 2만여 냥을 녹탈하였다. 넷째는 대동미를 징수할 때 1결당 정미 16두를 징수한 다음 이를 정부에 납부할 때는 값싼 하등미로 바꾸어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⁸⁾

이외에도 전봉준은 조병갑의 수탈은 “허다하여 기록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았다. 또한 전운사 조필영은 세미의 이중징수 및 운송비용, 운송선박 수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탈을 자행하였다.⁹⁾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학교인에 대한 수탈이 극심하였다. 고부의 동학교인들은 “고

6) 손화중이 동학에 입도한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후손의 증언에 의하면, 손화중이 동학에 입도한 것은 1882년이지만 호남지역이 포교를 많이 한 윤상오가 1882년, 김덕명이 1884년에 입교한 것으로 보아 1884년 6월 해월 최시행이 익산 사자암에 왔을 때 입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표영삼, 「김덕명·손화중·최경선의 행적」,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지도부의 성격』, 서경문화사, 1997, 200쪽)

7) 기존의 연구성과에서는 고부기포와 동학농민혁명을 분리해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고부민란’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고부기포와 동학농민혁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 ‘고부기포’라고 명명한 것은 고부기포의 핵심적인 주체세력이 동학 조직인 포를 통해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8) 「전봉준공초」(初招問目)(『나라사랑』 15, 외솔회, 1974, 151쪽).

9)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102-103쪽.

부군수 조병갑의 포획이 자심하여 도인이 견디지 못하게 하므로”¹⁰⁾라고 하였는데, 이는 동학교인에 대한 탄압과 수탈이 일반 농민보다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동학교인과 농민들은 접주 전봉준을 장두로 추대하여 조병갑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탈과 탄압은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全琫準은 宋斗浩, 宋大和와 더불어 趙秉甲을 징치하기 위해 기병을 할 것을 도모하였다. 이어서 기병하는 이유를 宋柱晟으로 하여금 해월 최시형이 있는 도소에 알렸다. 이와 동시에 태인의 崔景善, 금구의 金德明, 남원의 金開男, 무장의 孫和仲, 부안의 金洛喆 등 각 지역 동학 접에 檄文을 띄웠다. 뿐만 아니라 통문을 작성하여 각면과 각리에 포고하였다. 이로써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폭발하였다.¹¹⁾

그렇다면 격문의 내용을 무엇일까. 격문은 간신의 날뛰는 모습, 민심이 이탈된 것, 官紀의 문란, 행정의 부패, 민생의 도탄 중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今之爲臣은 不思報國하고 도적복위하며 掩蔽聰明하고 加意도容이라. 忠간지목을 謂之妖言하고 正直之人을 위之比도하여 內無포圍지재하고 外多虐民之官이라.

人民之心은 日益유變하여 入無학생之業하고 出無保구之策이라. 學政이 日사에 怨聲이 相續이로다.

自公卿以下로 以至方伯守令에 不念國家之危殆하고 道절비己운家之計와 前選之門은 視作生화之路요 應試之場은 擧作交역之市라.

許多화되가 不納王庫하고 反充사장이라. 國有累積之債라도 不念國報요 교사음이가 無所위기라. 八路魚肉에 萬民도탄이라.

民爲國本이니 削則國殘이라. 吾道은 유초야유민이나 食君之土하고 服君之義하며 不可坐視 國家之危亡이라. 以報公 補國安民으로 爲死生之誓라.¹²⁾

이 격문은 1893년 仲冬 하순에 전봉준이 작성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격문의 주요 내용은 간신과 탐관오리의 학정과 도탄에 빠진 민, 그리고 보국안민을 맹세하고 있다. 즉 고부기포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통문을 작성하여 각리 집강에게 포고하였다.¹³⁾ 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

10) 송재섭, 「고부교구실기」, 『천도교회월보』 83호, 인문부 16-17면.

11)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이 자료는 이미 오래 전에 공개되었지만 그동안 학계에서 별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Ⅲ(2001, 지식산업사)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 의하면, 이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자는 進菴 宋在燮(1889-1955) 씨가 단기 4287년(1954)에 펜으로 쓴 필사본인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저술연기가 쓰여져 있다. 필자는 이를 朴英宰 교수를 통해 朴明道 선생(父 朴來源, 祖父 朴寅浩) 덕에 소장되어 있는 원고본의 복사본을 기증받아 보고 있다. 앞뒤가 많이 훼손되었으나 이 檄文과 通文이 쓰여진 부분은 온전하다.”

12)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이 격문에 대해 김용섭은 그후 계속 보완되고 다듬어져서 다 달 후인 갑오년 정월에는 고부민란 시에 창의문으로 완성되며, 그후 무장봉기 시에는 한문으로 작성된다고 하였다.(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Ⅲ, 194쪽 각주 108)

13) 당시 전봉준 등 동학교인이 고부기포를 준비하면서 통문을 포고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東學推考』이다. 이 자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부에 살았던 유생 柳鳴川이 필사해 남긴 것으로 고부기포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박맹수,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관련 신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2,

다.

右文爲通諭事는 無他라. 大廈將傾에 此將奈何오. 坐而待之可乎아. 扶而求之可乎아. 奈若何오. 當此時期하야 海內同胞의 總力으로 以하야 撐而擊之코저하와 血淚를 灑하며 滿天下 同胞에게 衷心으로서 訴하노라.

吾儕飲恨忍痛이 已爲歲積에 悲塞哽咽함은 必無贅論이어나와 今不可忍일새. 茲敢烽火를 擧하야 其衷痛切迫之情를 天下에 大告하는 同時에 義旗를 揮하야 蒼生을 濁浪之中에서 救濟하고 鼓를 鳴하야써 滿朝의 奸臣賊子를 驅除하며 貪官汚吏를 擊懲하고 進하야써 倭를 逐하고 洋을 斥하야 國家를 萬年盤石의 上에 確立코자 하오니 惟我道人是 勿論이요 一般同胞兄弟도 本年 11月 20日를 期하야 古阜 馬項市로 無漏內應하라. 若-不應者-有하면 梟首하리라.

癸巳 仲冬 月 日

全瑋準 宋斗浩 鄭鍾赫 宋大和 金道三 宋柱玉 宋柱晟 黃洪模 黃贊五 宋仁浩 崔興烈
李成夏 崔景善 金應七 黃彩五¹⁴⁾

各里 里執綱 座下¹⁵⁾

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봉화를 들어 그동안 애통하고 절박한 사정을 천하에 알리고, 둘째는 의로운 깃발을 들어 창생을 구하고, 셋째는 북을 울려 조정의 간신과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고, 넷째는 척왜척양으로 국가를 튼튼히 하고, 다섯째는 동학교인뿐만 아니라 일반형제동포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1893년 11월 20일까지 마항시 즉 말목장터에서 기포할 것을 포고하였다. 이 통문에는 그동안 동학교단에서 1893년부터 전개하였던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운동에서 주장하였던 것이 집약되었다. 뿐만 아니라 격문과 통문의 내용은 이후 전개되는 무장포고문, 백산창의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는 무장기포와 백산대회가 고부기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처럼 전봉준은 격문과 통문을 돌려 고부기포의 당위성을 밝히자 곳곳에서 민중들이 모여 “나네 낫서 난리가 낫서. 참말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남아나겠나”하면서 여론도 기포에 대한 호의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봉준 등은 고부기포의 선후책을 마련하기 위해 송두호¹⁶⁾의 집에 都所를 설치하였다. 도소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고부기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5 참조)

- 14) 이 통문에 서명한 인물은 모두 15명이다. 한편 1968년에 공개된 사발통문에는 전봉준 등 20명이 서명하였는데, 5명의 차이가 있다. 이 통문에 참여한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주현, 「동학혁명 이후 동학군의 활동과 동향」,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을 참조할 것.
- 15)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이 사발통문에 대해서는 조광환, 「사발통문에 대한 재 고찰」, 『동학농민혁명 신 발굴자료 학술대회 논문』,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2006을 참조할 것.
- 16) 송재섭은 송두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송두호는 一郡에 명망이 높은 사람이요, 일찍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그의 장자 송대화와 함께 대접주의 책임으로 있음으로 일군 내에 토호 양반배가 거사할 시에 방해하거나 또는 장애가 됨을 제지하고 道衆을 동원시키는 역할에 적의한 인물이었다.”(송재섭, 『실기』, 48쪽)

본부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소에서 연일 모여 기포 이후 전개할 선 후책으로 다음의 4개 조항을 정하였다.

- 一. 古阜城을 擊破하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할 事
-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 一. 郡守에게 阿諛하여 人民을 侵魚한 吏屬을 擊懲할 事
- 一. 全州營을 陷落하고 京師로 直向할 事¹⁷⁾

나아가 전봉준 등은 고부기포를 이끌어 갈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 一. 一狀頭에 全璉準
- 一. 二狀頭에 鄭鍾赫
- 一. 三狀頭에 金道三
- 一. 參謀에 宋大和
- 一. 中軍에 黃洪模
- 一. 火砲將에 金應七¹⁸⁾

통문에 서명하였던 인물 즉 전봉준, 정종혁, 김도삼, 송대화, 황홍모, 김응칠 등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전봉준 등은 고부기포를 전개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면밀하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동학 조직을 중심으로 동학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도 동원하고, 격문과 통문을 마련하고 기포 이후 행동 절차, 그리고 지휘본부와 지도부를 조직하였다. 이는 단순한 고부라는 지역적 민란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추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혁명을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계획하였던 고부기포는 곧바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기포 후 첫 실행할 과제였던 군수 조병갑이 이해 11월 30일자로 익산군수로 발령되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초기의 고부기포는 유보되었다. 그런데 11월 30일 고부군수로 임명된 李垠鎔이 12월 24일 다시 황해도 안악군수로 전임 발령되었다.¹⁹⁾ 그리고 이날 申佐默이 고부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다음날 신병으로 사직하였고, 그 이튿날 26일 李奎白이 고부군수로 임명되었으나 그도 역시 신병으로 이유로 다음날 27일 사직하였다. 이날 이후 河肯一, 朴喜聖, 康寅喆 등이 고부군수로 임명되었지만 신병을 이유로 모두 사직하였다.²⁰⁾ 이처럼 12월 한 달 동안 고부군수에 5명이 차례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핑계를 대고 부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전라관찰사인 김문현의 강력한 천거에 의해 1894년 1월 9일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영임되었다.²¹⁾ 이 과정에서 조병갑

17)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이 4개 조항은 기존의 사발통문에 있는 4개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 一. 古阜城을 擊破하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할 事,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一. 郡守에게 阿諛하여 人民을 侵魚한 吏屬을 擊懲할 事, 一. 全州營을 陷落하고 京師로 直向할 事.

18)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19)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12월 24일조.

20)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12월 27일, 28일, 29일 및 고종 31년 1월 2일조.

21) 『고종실록』 31권, 갑오 1월 9일조 ;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월 9일 및 3월 11일조 ; 황현, 『오하기

은 익산군수로 가지 않고 여전히 고부에 머물고 있었다. 일단 기포는 철회되었지만 전봉준 등은 12월 중에 전주감영의 김문현을 찾아가 등소를 하였다. 그러나 김문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봉준 등 등소인을 모두 내쫓았다.²²⁾ 그러던 차에 익산군수로 발령났던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로 유임되자 고부기포는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한동안 유보되었던 고부기포는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로 유임되자 곧바로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전봉준은 1894년 1월 초 말목장터 부근 禮洞에 농악대를 조직하는 한편 기포를 위해 군사력을 갖추었다. 1894년 1월 10일 새벽 전봉준의 동원령을 받은 동학교인과 이에 동참한 농민 등 1천여 명은 말목장터로 집결하였다. 이곳에서 동학교인과 농민들은 장두였던 전봉준을 대표로 추대하고 고부관아를 습격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때에 探報軍이 報告하되 古阜郡守 趙秉甲이 各處로 官軍을 招募하야 對抗할 準備를 한다 하였다.

全琫準은 探報軍의 傳達을 듯고 忿心이 衝天하야 軍隊를 二路로 分하야 古阜邑을 向하니 秉甲이 官軍으로 天峙 齋嶺 上에 埋伏하였거늘, 全琫準이 꾸지러 가로대, 너희 등도 貪官의 놈의게 無常한 苦楚를 받았거늘 도로혀 너희 溫수되는 秉甲을 爲하야 우리 東學軍을 對抗코자 하니 當場에 降服을 하면 殘命을 容恕하려니와 萬一 不應하면 創頭孤魂을 免치 못하니라 號令하니 官軍놈들은 驚惶罔措하야 或은 降服하고 或은 四散逃走하였다. 이에 서발막대 거칠 것 없이 古阜城에 突入하야 東軒를 直擣하니 趙秉甲은 魂飛魄散하야 抱頭鼠竄하였다. 곳곳이 搜查하였으나 蹤迹이 杳然함으로 興奮된 群衆은 秉甲의게 阿附하야 民財奪取한 惡質傲吏輩를 一一이 搜查하였으나 亦是 避身하였으므로 家屋만 顛覆하고 刑獄을 毀破하야 罪囚를 釋放하며 倉穀를 發하야 貧民救恤하는 등 軍器倉과 火藥庫를 擊破하야 武器와 火藥을 收拾하야 翌日에 馬項市場으로 退屯하였다. 一方으로 萬石淤를 斷切하고 收稅로 積置한 穀物을 充用하며 白山城의 築造를 始作하였다.²³⁾

이에 의하면, 전봉준이 기포를 하자 조병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군을 동원하였다.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을 2대로 나누어 고부로 향하였다. 천치와 재령에 이르자 관군이 매복하여 대치하였다. 전봉준은 관군을 효유하자 이들은 항복하거나 흩어져 고부를 손쉽게 점령하였다. 조병갑은 놀라 도주하여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전봉준은 형옥을 부수어 죄인을 풀어주는 한편 창곡을 풀어 빈민을 구휼하였다. 또한 군기창과 화약고를 격파하고 무기를 확보하는 한편 마항장터에 다시 집결하였다. 이어 만석보를 파괴하고 군사적 요충지인 백산성을 축조하였다.²⁴⁾

문』, 수필 ; 김종익 옮김,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69-70쪽.

22) 정창렬, 「갑오동학농민전쟁연구」, 95-96쪽.

23)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 (필사본), 1954.

24) 장봉선, 『전봉준실기』, 1936;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 (1), 여강출판사, 1991, 353쪽. 백산은 군사적 요충지로 삼한시대부터 축성을 하였는데, 그 토성을 쌓은 흔적이 남아 있다.

이처럼 고부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일정한 조직력과 군율을 가지고 있었다. 기포 이후 3,4일 동안에 전체 군사는 1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였지만 3천명 정도였으며, 이를 통할하는 하는 사람으로 각촌에서 5명씩 선발하였다.²⁵⁾ 그리고 지휘소를 출입할 때는 왼쪽 손목에 노끈을 매고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²⁶⁾

한편 전주감영으로 피신하였던 조병갑은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고부기포를 진압하기 위해 병사 1천명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²⁷⁾ 오히려 김문현은 동학농민군을 해산시키기 위해 정석진을 파견하는 한편 별도로 암살대를 보내기도 하였다. 정석진이 부하 수삼인을 대동하고 전봉준을 면회한 후 해산을 종용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암살대는 담배장사를 가장하고 말목장터로 들어오다가 동학농민군에게 체포되어 오히려 희생되었다.²⁸⁾ 더욱이 전주감영에서는 병정 3백 명을 정읍에 매복하고 근방에 있는 7개 군의 병정을 소집하여 정읍으로 집결한다는 소문도 뒤따랐다.

3. 고부에서 무장을 거쳐 백산으로

이 사건 이후 말목장터에 설영하였던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관군의 공격을 대비하여 2월 25일 백산으로 이동 유진하였다.²⁹⁾ 동학농민군은 고부에서 기포하면서 지휘소를 말목장터에 두었다. 그러나 20여 일 후 지휘소는 백산으로 이동하였다. 지휘소를 말목장터에서 백산으로 이동한 상황을 다음과 같다.

先是에 古阜를 陷落하고 貪官을 攘逐하며 傲吏輩를 懲治하니 各地로부터 和應하는者-風前에 漸水와 같이 大混雜을 이루더라. 全將軍은 모든 將領과 相議하여 曰, 우리가 民瘼郡弊를 肅淸하고 政治를 革新코자 함이어늘,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自然 弊瘼이 民間에 없지 못할 것이요. 또한 不久에 官軍이 全州로부터 襲來할 것이니, 만일 이곳에서 戰鬪가 되면 人家가 稠密한 關係로 人民의 死傷者가 많을 테이니, 人家가 稀闊한 白山으로 移陣함이 어떠 하뇨. 모든 將領이 그와 같이 함이 可라 하는지라. 이에 古阜 北距 20리 許 白山에 移陣하니, 사람의 발자취와 말굽에서 일어나는 티끌이 濛濛히 일어나서 天空을 가리우고 旗幟와 劍戰이 서로 錯雜하여 萬山遍野에 人山人海를 이루었다.³⁰⁾

이 글에 따르면, 고부기포 당시 동학농민군이 백산으로 이동한 것은 첫째 민폐를 방지하기 위한 것, 둘째는 관군의 내습에 대비하기 위한 것, 셋째는 인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앞서 축성하였던 백산으로 이동한 것이다. 백산

25) 파계생, 「전라도고부민요일기」. 그러나 다른 기록에는 5백 명, 수천 명 등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26) 박문규, 『석남역사』, 갑오년 정월조.

27) 파계생, 「전라도고부민요일기」.

28) 장봉선, 「전봉준실기」;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 여강출판사, 1991, 353쪽.

29) 박문규, 『석남역사』, 갑오년 정월조; 파계생, 「전라도고부민요일기」.

30)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

으로 진주한 동학농민군은 장막을 설치하고 진지를 축조하여 관군의 공격을 대비하였다. 이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 백산은 해발 47미터에 불과하였지만 동진강이 백산을 3면으로 두르고 있는 배들평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따라서 백산은 관군의 내습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이기도 하였다.

백산은 조선의 비결에 ‘古阜白山은 可活萬民’이라 하였으며, 삼면이 동진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일면이 겨우 사람이나 말이 통행할 수 있는 요새지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은 옥야천리의 평야를 가진 호남의 곡창지대였다. 또한 이곳에는 海倉이 있어 세곡 4천여 석을 저장해 놓았다.³¹⁾ 그리고 백산은 들판에 우뚝 솟아 있어 집결과 감시가 용이한 전략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이동하여 주둔한 것이다. 이후 백산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백산에 주둔해 있는 동안 동학농민군은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釐革하는 내용의 격문을 비밀리에 58개 지역 동학지도자에게 띄웠다.³²⁾ 그러나 실제적으로 당시 원성의 대상이었던 전문사 조필영이 관장하던 함열의 전운영은 격파하지 못하였다. 전봉준은 함열 조창에 나아가 전운영을 격파하고 전문사 조필영을 징치하고자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고부를 벗어나 월경하면 반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³³⁾ 그렇지만 3월 1일에는 부안 줄포로 진출하여 세곡창고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백산에서 20여 일 유진하였던 동학농민군은 3월 13일에 이르러 일단 해산하였다.³⁴⁾ 여기에는 이용태의 동학교인과 농민들에 대한 탄압과 이후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에 비해 금산의 동학농민군은 3월 12일 짧은 몽둥이를 들고 관리들의 집을 습격하여 불태우기도 하였다.³⁵⁾

고부에서 동학교인과 농민들이 기포하여 관아를 습격하자 조정에서는 이중적으로 대응하였다. 하나는 용현현감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새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하여 동학농민군을 해산시키는 한편 주동자를 엄중 조사하는 것이었다.³⁶⁾ 2월 15일 고부군수로 임명받은 박원명은 부임 이후 동학농민군이 해산하기만 하면 기포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민심을 수습하였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과 고부관아 사이에는 비교적 원만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는 병졸 8백 명을 동원하여 기포의 주동자와 동학교인들의 집을 불태우거나 부녀자를 능욕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³⁷⁾ 이처럼 상황

31) 김광래, 「전봉준의 고부 백산기병」, 87쪽.

32) 파계생, 「전라도고부민요실기」.

33) 장봉선, 「전봉준실기」, 1936;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 353쪽; 송재섭, 「실기」, 62쪽.

34) 파계생, 「전라도고부민요실기」. 황현의 『오하기문』에는 3월 3일에 해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35) 황현, 『오하기문』, 수필(『번역 오하기문』, 75쪽).

36) 『고종실록』 고종 31년 2월 15일조 및 『일성록』 갑오년 2월 15일조; 『고종시대사』 3, 1969, 탐구당, 410쪽.

37) 오지영, 『동학사』, 106-07쪽.

이 급변하자 백산에 유진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은 3월 13일 잠정적으로 해산을 하였고, 전봉준은 자신을 따르는 휘하 수십 명과 함께 무장으로 피신하였다.³⁸⁾ 이들은 고부기포 당시 핵심 지도부였다. 고부기포에 참여하였던 동학교인과 일반농민들은 해산하였지만 지도부는 해산하지 않고 여전히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여전히 활동을 하였다.

전봉준이 무장으로 간 이유는 크기 세 가지였다. 첫째는 고부접주 전봉준의 연원 관계가 무장대접주 손화중의 관내였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무장대접주로 있는 손화중의 동학세력이 호남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관계에서 무장이 지리적으로 고부와 비교적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전봉준과 손화중은 단순한 연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지적 결합관계였다.³⁹⁾ 이에 따라 전봉준은 손화중의 후원을 받으면서 무장기포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장에 머물던 전봉준은 손화중과 고부기포의 상황과 관의 동향, 그리고 이후의 대책 등을 논의한 후 손화중의 집에 도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동학교단은 해월 최시형이 머물고 있던 충청도 보은에 대도소를 두었는데, 전봉준과 손화중이 도소를 설치한 것은 대도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호남지역의 동학조직을 통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손화중은 전봉준의 기포에 대해 시기상조라 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⁴⁰⁾ 이는 동학교단과 관계 때문이었다.

손화중은 1892년 공주 신평에 머무를 때 김낙철, 김개남, 김덕명 등 호남의 주요 지도자와 함께 해월 최시형을 배알하고 호남 동학교인 간의 '相和'에 대한 강화를 받은 바 있다.⁴¹⁾ 또한 1892년 11월 삼례교조신원운동은 물론 1893년 2월 광화문 교조신원운동에도 참가하였다.⁴²⁾ 뿐만 아니라 이해 3월 보은에서 전개된 척왜양창의운동에 정읍대접주로 참가하였다.⁴³⁾

이처럼 동학교단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손화중은 전봉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전봉준이 3월 13일 고부에서 동학농민군을 일시적으로 해산하고 3월 20일 무장에서 다시 기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간에 손화중이 교단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 호남의 주요 대접주들은 “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 우리는 살상과 약탈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오직 탐관오리만은 처벌할 것”⁴⁵⁾을 기치로 하여,

38) 신용하,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사』, 지식산업사, 2005, 99쪽.

39) 신용하,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사』, 143-144쪽.

40) 조광환, 『소통하는 우리 역사』, 103쪽.

41) 오지영, 『동학사』, 98-99쪽;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2편 43쪽.

42) 『해월선생문집』, 계사조.

43) 오지영, 『동학사』, 83-84쪽.

44) 이러한 사례는 1871년 이필제의 영해교조신원운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필제는 영해를 중심으로 동학교인을 동원하고자 하였으나 동학교단의 책임자였던 해월 최시형의 승낙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다. 이에 이필제는 해월 최시형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던 박영관 등을 보내 해월 최시형을 설득, 승낙을 받은 후에야 동학교인을 동원할 수 있었다.

45) 황현, 『오하기문』, 수필; 김중익 역,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72쪽.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포의 동학 조직을 집결한 후 3월 20일 무장 동음치에서 고부에 이어 포고문을 선포하였다.⁴⁶⁾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부자는 인륜 중에서도 큰 것인데,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강직하며, 아버지가 인자하고 자식이 효도를 한 이후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끝이 없는 복이 올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며, 신통력 있는 명확함과 성스러운 명석함을 지니셨다. 현명하고 어질며 바르고 강직한 신하가 주위에서 명석하도록 도와주면 요순(堯舜)의 교화와 문경(文景)의 통치를 가히 지정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랄 수가 있다.

지금 신하라는 자들은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녹봉과 지위를 흠치며, 전하의 총명을 가려서 아부하고 뜻만 맞추면서 충성스럽게 간언(諫言)을 하는 선비에게는 요망한 말을 한다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고 부른다. 안으로는 나라에 보답하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가 많아, 백성들의 마음은 날마다 더욱 변하여 가정에 들어가서는 생업을 즐겁게 하는 일이 없고, 밖에 나와서는 몸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며, 학정이 날마다 심하여 ‘악’하는 소리가 서로 계속되고 있고, 임금과 신하의 의리와 부모와 자식의 윤리, 위와 아래의 분별이 반대로 무너지고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관자(管子)는 말하기를 “사유(四維)가 꺾이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 심각하다. 정승 이하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을 살찌우고 가문을 윤택하게 할 계획에만 마음이 간절하고, 인사를 하고 관리를 선발하는 통로는 재물을 생기게 하는 길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시험 장소는 물건을 교역하는 시장과 같게 되었고, 많은 재물과 뇌물이 왕실 창고에 납부되지 않고 도리어 개인 창고를 채워 나라에는 채무가 쌓였다.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란하고 멋대로 놀아 두려워하고 거리키는 것이 없으니, 전국은 어육(魚肉)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수령들의 탐학은 참으로 그대로이다. 어찌 백성이 궁핍하고 또 곤궁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깎이면 나라는 쇠약해지는데,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저택을 건립하여 오직 혼자만 온전할 방법만을 찾고, 다만 녹봉과 지위를 흠치니, 어찌 그것이 사리이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시골에 남겨진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살고 임금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앉아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없어, 8도가 마음을 같이 하고 수많은 백성이 의논하여 지금 의로운 깃발을 내걸고 보국안민(輔國安民)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것을 맹세하였다. 지금의 모습은 비록 놀라운 것에 속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각 백성의 생업을 편안하게 하고 태평한 세월이 되도록 함께 기원하며, 모두 임금의 교화에 감화된다면 천만다행이다.⁴⁷⁾

46) 박문규, 『석남역사』, 갑오년 4월조; 황현, 『오하기문』 수필;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7쪽.

47) 무장에서 동학조직이 기포할 때 선포하였던 포고문은 오지영의 『동학사』, 『수록』, 어윤중의 『취어』, 황현의 『오하기문』, 박주대의 『나암수록』, 『Mutel 文書』, 그리고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에 각각 실려 있다. 이 중 『수록』, 『오하기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의 포고문은 동일한 내용이고, 『동학사』의 ‘창의문’은 앞의 포고문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그리고 이 포고문은 발표일이 없어 언제 발표되었는지 알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학사』에는 ‘갑오 정월’, 『수록』에는 갑오년 3월 27일조 앞에, 『취어』에는 갑오년 4월 11일조에, 『오하기문』에는 3월조에,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1894년 5월 15일(음 4월 11일)자 각지에서 보고된 문서 별지에 각각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이 작성한 『조선폭동실기』(『적도의 격문』)와 『갑오조선내란시말』(『동학당의 선언』)에도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발행되었던

이 무장포고문은 다분히 유교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학의 핵심적인 내용인 '보국안민'과 '제세안민'할 것을 표방하였다.

무장에서 기포할 때 동학농민군의 조직은 어느 정도였을까? 『수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1백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3월 16일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난류배 수천 명' 즉 수천 명의 동학교인들이 모여들었고, 16일과 18일 사이에는 '밤낮으로 사방에서 몰려와 천여 명'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 모인 동학의 포 조직은 손화중 관내에서 고창의 오하영 오시영 임형로 임천서 등 휘하 1천5백명, 무장의 송경찬 강경중 등 휘하 1천3백명, 흥덕의 고영숙 휘하 7백명, 정읍의 손여옥 차치구 등 휘하 1천2백명, 김개남 관내에서 태인의 김낙삼 김문행 등 휘하의 1천3백명, 김덕명 관내에서 태인의 최경선, 김제의 김봉년, 금구의 김사업 김봉득 유한필 등 휘하의 2천명으로 대략 8천여 명 정도였다.⁴⁸⁾ 무장기포에 참여한 동학조직을 연원 계열로 보면 손화중포, 김개남포, 김덕명포이며, 지역적으로 보면 고창, 무장, 흥덕, 정읍, 태인, 김제, 금구 등지였다.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무장의 동북쪽에 위치한 屈峙를 넘어 흥덕을 거친 다음 3월 21일 고창을 점령하였다.⁴⁹⁾ 고창에 머물던 동학농민군은 2대로 나누어 1대는 정읍과 고부로 가서 이곳을 점령하였으며, 다른 1대는 3월 22일

일본신문 『時事時報』(5월 25일자), 『大阪朝日新聞』(5월 25일자), 『大阪毎日新聞』(5월 25일자)에도 각각 게재되었다. 대체적으로 이 포고문은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할 때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이 '포고문'과 『동학사』의 창의를문을 비교하기 위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世上에서 사람을 휘타 함은 人倫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君臣父子는 人倫이 가장 큰 者라. 人君이 어질고 臣下가 곧으며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孝道한 後에야 國家가 無疆의 域에 믿어가는 것이다. 同我 聖上은 仁孝慈愛하고 神明聖敎한지라 賢良方正之臣이 있어 그 聰明을 翼贊할지면 堯舜之化와 文景之治를 可히써 바랄지라. 今日에 人臣된 者 圖報를 思치 않고 한갓 祿位만 盜賊하여 聰明을 擁蔽할 뿐이라. 忠諫之士를 妖言이라 이르고 正直之人을 匪徒라 하여 안으로는 輔國의 材가 없고 밖으로는 虐民이 많다. 人民의 마음은 날로 變하여 들어서는 樂生의 業이 없고 나가서는 保身의 責이 없다. 虐政이 날로 자라 怨聲이 그치지 아니하여 君臣 父子 上下의 分이 무너지고 말았다. 所謂 公卿 以下 方伯守令들은 國家의 危難을 生覺지도 아니하고 다만 肥己潤産에만 盡切하여 詮選의 門을 돈 버리러 불 뿐이며 應試의 場은 賈買하는 저자와 같았다. 許多한 貨賂는 國庫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個人의 私藏을 채우고 만 것이며, 國家에는 積累의 債가 있어도 淸償하기를 生覺지 아니하고 驕慢하고 奢侈하고 淫亂하고 더러운 일만을 忌憚없이 行하여 入路가 魚肉이 되고 萬民이 塗炭에 들었다. 守宰의 貪虐에 百姓이 어찌 困窮치 아니하라. 百姓은 國家의 根本이라 根本이 衰削하면 國家는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輔國安民의 責을 生覺지 아니하고 다만 財 帛만을 生覺하여 國祿만 없애는 것이 어찌 오늘 일이라. 우리 등이 비록 在野의 遺民이나 君土를 먹고 君衣를 입고 사는 者라. 어찌 차마 國家의 滅亡을 앉아서 보겠느냐. 八域이 同心하고 億兆가 詢議하여 이에 義旗를 들어 輔國安民으로써 死生의 盟誓를 하노니, 今日의 光景에 놀라지 말고 昇平聖化와 함께 들어가 살아가기를 바라노라. 甲午 正月 日 湖南 義所 全捧準 孫化中 金開男 等“

- 48) 오지영, 『동학사』, 111쪽. 이 기록을 고부를 점령하였을 때로 보는 견해도 있다.(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152쪽) 그러나 『동도문변』에는 “이때에 전주인 전봉준, 고부인 김개남 등은 한 번 불러 둔 집한 자가 경각에 만여 명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진영은 무장기포에 김개남 포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진영, 『김개남과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2, 한울, 1995, 74쪽) 하지만 무장포고문에 김개남이 서명하였다면 김개남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보여진다.
- 49) 3월 20일 무장을 출발한 동학농민군의 진격로에 대해 배항섭은 흥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창으로 갔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라도고부민요일기』에 의하면, 동학농민군은 무장을 출발하여 屈峙를 넘었다고 하였는데, 이 굴치를 넘으면 바로 흥덕이다. 이로 볼 때 동학농민군은 무장-굴치-흥덕-고창으로 진격하였던 것이다. 이는 시간적으로 볼 때 무장을 3월 20일 이른 새벽에 출발하면 흥덕을 거쳐 다음날인 3월 21일에는 고창에 도착할 수 있다.

12시경 다시 흥덕을 지나 부안과의 경계인 사진포에서 하루를 묵은 후 3월 23일 오전 10시경 부안 줄포로 향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사진포에서 하루를 유숙한 것은 이곳에 해창이 있어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줄포는 부안대접주 김낙철의 관내로, 이들이 이곳으로 진출한 것은 부안의 동학조직과 사전에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줄포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오후 6시 줄포를 떠나 2시간 후인 오후 8시경에 고부에 도착하였다.⁵⁰⁾ 이로써 고창에서 2대로 나누어졌던 동학농민군은 고부에서 다시 합류하였다. 당시 줄포로 갔던 동학농민군은 척후기와 청홍백황의 색으로 부대를 구분하였으며, 병기는 죽창, 활, 창, 그리고 구식 화승총으로 무장하였다.⁵¹⁾ 그리고 척후대는 북과 나팔로 전의를 북돋았으며, 머리에는 황건을 쓰기도 하였는데, 지도부는 말을 탔다.⁵²⁾

3월 23일 고부에 이른 동학농민군은 25일까지 3일간 머물렀다. 23일 늦은 오후 8시경에 고부에 도착한 동학농민군은 우선 향교와 관아를 차지하고 읍내의 서리와 민가에서 저녁을 조달하였다.⁵³⁾ 24일의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어 자세한 활동은 알 수 없지만, 억울하게 투옥되었던 동학교인 등을 석방하는 한편 군량미를 비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핵사 이용태에게 부화뇌동한 관리들을 색출 처리하고,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25일에는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고를 열다가 실수로 화약고에 불을 내어 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기도 하였다.⁵⁴⁾ 이날 오후 2시경 동학농민군은 고부의 서북쪽으로 빠져나갔다. 당시 고부에 머물렀던 동학농민군은 3천여 명으로 대부분 동학교인들이었다.⁵⁵⁾ 이들은 두지리에 잠시 진을 치고 화약고를 불태웠다.⁵⁶⁾ 이어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하루를 유숙한 후 3월 26일⁵⁷⁾ 백산에 도착 설영하였다. 그리고 이날 화호의 신덕정에서 총을 쏘고 함성을 지르는 등 훈련을 하면서 동학농민군의 군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⁵⁸⁾

백산에 동학농민군이 고부기포에 이어 두 번째 설영한 것은 이미 고부기포 때 백산성을 축성한 바 있으며, 여전히 백산을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인 백산은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이 집결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이었다. 더구나 “可活萬民”이라는 비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비결은 전쟁에서 정신적 종교적으로 위안을 주는 최대의 무기이기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손화중의 ‘선암사 석불 비결’이었다.⁵⁹⁾ 뿐만 아니라 부적이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사

50) 『수록』, 1894년 3월 27일 계초(『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6-7쪽).

51) 파계생, 『전라도고부민요일기』(『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7쪽).

52) 『수록』, 1894년 3월 27일 계초(『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6-7쪽).

53) 『수록』, 1894년 3월 27일 계초(『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7쪽).

54) 파계생, 『전라도고부민요일기』(『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8쪽).

55) 『수록』, 1894년 3월 27일 계초(『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7쪽)

56) 황현, 『오하기문』, 수필(『번역 오하기문』, 75쪽).

57) 동학농민군이 백산에 도착한 날은 3월 21일, 25일 또는 26일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고부에 도착한 3일 후, 그리고 황현의 『오하기문』과 『수록』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3월 26일에 백산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58) 황현, 『오하기문』, 수필(『번역 오하기문』, 75-76쪽).

59) 오지영, 『동학사』, 87-92쪽 참조.

례의 하나이다. 이는 비결을 통해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⁶⁰⁾

백산에 설명한 동학농민군은 새로운 지휘체계를 갖추고 격문을 띄워 호남뿐만 아니라 호서지역의 동학농민군까지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부읍에서 유숙한 지 3일 후에 대군을 몰아 고부 白山에 진을 옮겨 치고 다시 군을 조성할 때, 중망에 의하여 전봉준이 대장이 되고 손화중 김개남이 총관영이 되고, 김덕명 오시영이 총참모가 되고 최경선이 영솔장이 되고, 송희옥 정백현 등이 비서가 되었고, 대장기 쪽에는 輔國安民 4자를 大書로 特書하였고 이에 再度의 檄文을 지어 사방에 전하였다.⁶¹⁾

이로써 백산에는 동학농민군의 최고지휘부가 설치되었다.

4. 백산대회에서 혁명군으로

3월 26일 백산으로 이동한 동학농민군은 다음과 같이 지휘체계를 개편하였다.

대 장 전봉준
총관영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 김덕명 오시영
영솔장 최경선
비 서 송희옥 정백현

백산에서 개편된 지휘체계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확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60) 박맹수는 동학농민군이 백산에 설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첫째, “고부백산(古阜白山)이 가활만민(可活萬民)”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1894년 당시의 백산은 고부군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 이 일대 민중들 사이에는 “고부의 백산이야말로 만백성을 살릴 수 있는 땅”이라는 비결이 널리 퍼져 있었다.(파계생,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참조) 이 때문에 농민군들은 백산으로 가면 길(吉)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백산성은 농민군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조달하기가 대단히 쉬운 이점이 있었다. 백산성은 지리적으로 세 방면이 모두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쪽 방면만이 사람과 말이 통행할 수 있는 육지였다. 이런 지리적 특성은 2006년 1월 6일 필자의 백산성 답사에 동행한 부안 현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관개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당시에 물이 풍부한 백산성 주변은 조선 땅 안에서도 매우 이름이 난 벼농사 지대, 즉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백산성 근처에는 가을이 되면 생산된 벼를 세금으로 거두어 보관하던 작은 창고(社倉)들이 여러 곳이나 있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농민군들은 식량조달이 비교적 쉬운 백산성으로 모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백산성은 근처에서 홀로 높아(「전라도 고부민요일기」), 사방에서 모여들기 쉬운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백산성은 해발 48m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야산에 불과하지만, 사방에 높은 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런 교통상의 이점을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던 농민군들이 백산성으로 모여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대지와 자연에 뿌리를 박고 살아온 민중들의 생활세계(生活世界) 속에 배어 있던 생활의 지혜들이 바로 농민군들로 하여금 백산성으로 자연스럽게 모여 들게 한 가장 커다란 이유였다.(박맹수, 「서면 백산(白山)이요 앉으면 죽산(竹山)이라」, 『부안독립신문』, 2006년 1월 26일자)

61) 오지영, 『동학사』, 111-112쪽.

무장에서 기포할 당시에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단순한 지휘체계였지만, 백산에서는 보다 분명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었다. 전봉준은 최고지도자로서 지위를 확립하였고, 그 아래 총관령에 손화중과 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과 오시영, 영솔장에 최경선, 그리고 전봉준의 비서로 송희옥과 정백현을 각각 두었다. 이는 무장기포 당시보다 조직이 혁명군으로서의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호남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까지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격문을 각지로 발송하였다.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義를 들어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 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塗炭의 中에서 건지고 國家를 磐石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貪虐한 官리의 머리를 베이고 밖으로는 橫暴한 強敵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富豪의 앞에 苦痛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首領의 밑에 屈辱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怨恨이 깊은 者라. 조금도 躊躇치 말고 時刻으로 일어서라. 萬一 期會를 잃으면 後悔하여도 믿지 못하리라.⁶²⁾

이 격문은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오는 유일한 것이지만, 당시 동학농민군의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⁶³⁾ 즉 동학농민군의 기포가 첫째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둘째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 함을 그 목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처결, 밖으로는 외세의 구축이라는 반봉건적, 반제국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교적 지배질서에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학농민군이 백산에서 각지에 파송한 격문은 ‘혁명’임을 선포하는 함축적인 뜻을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백산에서 각 지역 동학조직의 합류와 이에 참여한 농민들로 인해 “서면 백산이요, 앞으면 죽산”이라 할 정도로 동학농민군이 집결하였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당시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주요 지도자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접주⁶⁴⁾

구분	주요 접주
대장소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오하영 오시영 임천서 강경중 송경찬 고영숙 김봉년 김사업 김종득 유한필 손여옥 차치구

62) 오지영, 『동학사』, 112쪽.

63) 인용하는 백산대회에서 발표한 격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힘 바 있다.

“이 격문은 뒤의 집강소의 행정개혁 12개조와 함께 농민군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격문이다. 무장기포의 창의문에서는 봉기가 국왕에 대한 반역이 아님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에 급급하여 봉기의 본뜻을 충분히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유교의 용어를 분식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고부 점령에 성공하고 백산에서 1만 명의 농민군을 편성하는데 성공한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거릴 것이 없이 자유로운 조건 위에서 대담하고 솔직하게 봉기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백산의 격문은 농민혁명 선언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155쪽)

64) 오지영, 『동학사』, 113-114쪽.

고창	홍낙관 홍계관 손여옥
무장	송문수 송진호 장두일 곽창옥
영광	최시철 오정은
고부	정일서 김도삼 홍경삼 정종혁 송대화 송주옥 정덕원 정운집 전동팔 홍광표 주관일 주문상 운상홍
정읍	임정혁
태인	김하영 김한솔 김연구 김지풍 최영찬
금구	송태섭 조원집 이동근 유공만 유한솔 최광찬 김응화 김운옥 김인배 김가경
김제	황경삼 하영운 한경선 이치권 임예옥 한진열 허성의
옥구	허진
만경	진우범
부안	배규인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운교 노영학 노운하 박인화 송두옥 김행로 이민홍 임춘경 이동근 김응문
임실	최승우 최유하 임덕필 최우필 조석걸 이만화 김병옥 문길현 한영태 이용학 이병용 곽사회 허선 박경무 한군정
남원	김홍기 이기동 한진학 김태옥 김종학 이기면 이창수 김우직 김연호 김시찬 박선주 정동훈 이교춘
순창	이용술 양희일 오동호 김치성 방진교 최기환 지동섭 오두선
진안	이사명 전화삼 김택선
장수	김숙여 김홍두 황학주
무주	이용백 윤치갈 성순
부안	신명언 백이구
장흥	이방언 이인환 강봉수
담양	남주송 김중화 이경섭 황정옥 윤용수 김희안
창평	백학 유형로
장성	김주환 기수선 기동도 박진동 강계중 강서중
능주	문장렬 조중순
광주	강대열 박성동 김우현
나주	오중문 김유
보성	문장형 이치의
영암	신성 신란 최영기
강진	김병태 남도균 윤시환 장의운 송병수 윤세현
홍양	유희도 구기서 송년호
해남	김도일 김춘두
곡성	조석하 조재영 강일수 김현기
구례	임춘봉
순천	박낙석
전주	최대봉 강문숙 강수한 송창렬 박기준 오두병

<표1>에 의하면,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지역은 34개 지역이며, 지도급 인물은 대장소를 제외하고 160여 명에 달하였다. 특히 대장소의 전봉준을 비롯하여 대장 및 장령급은 모두 무장기포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었다. 즉 백산 동학농민군의 지도부는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각포의 지도급 인물이었으며, 무장기포의 지도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는 혁명 과정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1만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동학의 접포 조직을 살펴볼 때, 접은 대체적으로 2百戶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160명의 각 접당 2백명씩 참여하였다면 적어도 3만2천여 명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과 지도급 인물은 대체로 호남일대에 한정하고 있어 호서지역의 참여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호남일대 전역에서 참가하였다는 것

은 동학농민혁명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백산에서 호남지역의 동학농민군이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은 호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영남지역까지도 동학농민군이 기포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백산으로 호남일대의 동학농민군이 집결함에 따라 동학농민군은 새로운 강령과 군율이 필요하였다. 이미 ‘동학’이라는 종교적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보다 분명히 할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4대 名義(강령)와 ‘12조의 紀律(군율)을 제정하였다. 먼저 4대 명의를 다음과 같다.

- 첫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함부로 없애지 않는다.(不殺人 不殺物)
- 둘째, 충과 효를 함께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忠孝雙全 濟世安民)
- 셋째, 일본 오랑캐를 쫓아내 없애고 성스러운 도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逐滅倭夷 澄清聖道)
- 넷째,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驅兵入京 盡滅權貴)⁶⁵⁾

이 4대 명의를 인륜적 보편의 의미를 담고 있는 生物의 존중과 충효, 그리고 격문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반봉건적, 반제국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 즉 첫째 항목의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함부로 없애지 않는 것은 동학사상의 핵심인 삼경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인본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不殺物’은 해월 최시형의 ‘物物天 事事天’과 ‘敬天, 敬人, 敬物’의 삼경사상 중 敬物思想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항목의 충과 효는 유교적 윤리로서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고대에서부터 유지되고 있었던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階序의 질서가 필요하였던 성리학적 조선사회에서 보다 강조되었지만 이는 동학에서도 여전히 강조되었던 덕목이었다.⁶⁶⁾ 셋째 항목은 반제국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 즉 격문의 ‘횡폭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을 행동강령으로 나타낸 것으로 일제의 침략주의를 배격하고 나라를 반석위에 두고자 하는 의미인 것이다. 넷째 항목은 반봉건적 요소를 담고 있다. 즉 격문에서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라고 한 바와 같이, 중앙 조정의 부패한 권세가와 양반들을 제

65) 정교, 『대한계년사』 권2, 1894년 4월조; 정교著 조광編, 『대한계년사』 2권, 소명출판, 2004, 24쪽. 그리고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의하면, “인명과 물건을 해치지 않고,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히 살게 하며, 洋人과 倭人을 내쫓아 聖道를 밝히고, 군대를 몰아 경성으로 들어가 권기를 모두 멸한다(均勿傷人物害 忠孝雙全濟世安民 逐滅洋倭澄清聖道 驅兵入京盡滅權貴)”라고 되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 세력까지 구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쪽 및 335쪽) 이외에도 『內亂實記朝鮮事件』 (『충서』 25, 175쪽)에도 게재되어 있다.

66) 특히 해월 최시형은 그의 범설에서 효를 강조하였다. “천지부모를 기리 모셔 잊지 아니함을 깊은데 임한 듯이 하며, 얽은 어름 같이 하여 지국한 정성과 지국한 효도로써 지극히 공경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자식된 도리니라. 그 아들딸이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부모가 크게 노하여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벌을 내리나니 경계하고 삼갈지이다. (중략) 어려서 먹은 것이 어머니의 젖이 아니고 무엇이며, 자라서 먹는 것이 천지의 곡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젖과 곡식은 이것이 천지의 녹이니라. 사람이 천지의 녹인줄 알면 반드시 식고하는 이치를 알 것이니 어머니의 젖으로 자란줄을 알면 반드시 효도로써 봉양할 마음이 나는 것이니라”(『천지부모』, 『천도교경전』, 천도교중앙총부, 1971, 137-141쪽)

거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창생을 구하고자 하는 의미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4대 명의는 동학의 생명존중사상과 인간 본연의 윤리, 그리고 반봉건적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을 밝힌 것이었다.

나아가 백산의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역시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12개조의 군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1. 항복하는 사람은 따뜻하게 대한다.(降者愛對)
2. 곤궁한 사람은 구제한다.(困者救濟)
3. 탐학한 관리는 쫓아낸다.(貪官逐之)
4. 따르는 사람은 경복한다.(順者敬服)
5. 굶주린 사람은 먹여준다.(飢者饋之)
6.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은 없앤다.(姦猾息之)
7. 도주하는 사람은 쫓지 않는다.(走者勿追)
8. 가난한 사람은 진휼한다.(貧者賑恤)
9. 불충한 사람은 제거한다.(不忠除之)
10. 거역하는 사람은 효유한다.(逆者曉諭)
11. 병든 사람은 약을 준다(病者給藥)
12. 불효하는 사람은 형벌한다.(不孝刑之)⁶⁷⁾

이 12개조 기율은 4대 명의 중에서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이었다. 즉 생명존중의 인본주의적 요소와 충효의 사회적 윤리를 보다 강

6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20쪽 및 346쪽;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154쪽. 동학농민군의 '12개조의 기율(군율)'의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 3월 25일설(정교, 『대한계년사』;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154쪽), 둘째 3월말 또는 4월초설(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140쪽), 셋째 4월중순설(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전쟁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상황』, 『동학연구』 11, 한국동학학회, 2002, 49-50쪽) 등이다. 이 군율은 앞서의 『대한계년사』 외에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19-20쪽), 『동비토록』(『동학농민혁명구역총서』 3, 115-116쪽), 『조선폭동실기』의 「동학당 대장의 호령」에 실려 있다. 그리고 같은 책의 「영광 적영의 군령장과 계군령」에도 실려 있다. 또한 『갑오조선내란시말』(『동학당의 군기』), 『內亂實記朝鮮事件』(『東徒12條의軍旗』)에도 실려 있다. 이외에도 『東京朝日新聞』(『동학당 대장의 호령』, 6월 3일자), 『萬朝報』(『東徒12條의軍旗』, 6월 5일자), 『大阪朝日新聞』(『12條의軍旗』, 6월 3일자) 등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에도 실려 있다. 배항섭은 '12개조의 기율'이 동학농민군의 영광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4월 중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 실려 있는 군율은 시간적으로 전후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신문에 소개되고 있는 '12조의 기율'은 한 기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여 동일한 기사이다. 그리고 이들 신문의 기사의 전후관계를 보면 일정하지가 않다. 이는 '12조의 기율'이 영광과 관련된 기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사이며, 편집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편익상 게재한 것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폭동실기』이다. 이 책에는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앞뒤 면에 실려있는데, 오히려 영광 관련기사에 실려 있는 '戒軍令'은 2개조가 누락되어 10개조만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 소개된 군율의 전후 기사를 보면 특히 『동비토록』의 경우 4월 21일조에 함께 실려있지만, 제목은 '정탐기'로써 독립적인 기사이고 바로 이어 4월 4일에 '東徒가 법성포의 아전과 향임에게 보내는 통문'이 실려있다. 뿐만 아니라 『동비토록』의 내용 역시 일본 신문이나 일본인들이 남긴 것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갑오조선내란시말』이란 책은 동학농민혁명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는데, '12조의 기율'은 백산대회에 이어지고 있고, 영광과 관련된 동학농민군의 활동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2조의 기율'은 백산대회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각 지역 동학농민군이 군율로 지켜져 오던 것을 정탐하여 기사로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한 것으로, 동학농민군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봉준이 각 부대장에게 당부한 약속과도 같다. 즉 전봉준은 “언제나 적을 대할 때는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가장 큰 공으로 삼겠다. 비록 부득이 싸우더라도 절대 인명을 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러므로 행군할 때는 절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효제충신한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으면 그 주위 10리 안에는 주둔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⁶⁸⁾

3월 26일 백산에 집결한 후 새로운 지도체제와 강령, 군율을 갖춘 동학농민군은 3월 말경 전주로 진군하였다. 이에 앞서 동학농민군은 백산에 설영하고 있는 동안 각지에 통문과 전령을 보내 군량미를 확보하였다. 우선 백산에 도착 설영한 3월 26일에는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김제군 보고에 의하면 “읍에서 거두어들이는 돈과 곡식이 얼마쯤인지 내용을 아는 아전이 장부를 가지고 길가 역참에서 기다리라”는 전령을 보내 군자금과 군량미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3월 29일에는 태인현으로 “포수와 창수를 각 1백 명을 거느리고 북과 나팔 징과 바라를 일제히 울리며 기다리라”는 서찰을 보내기도 하였다.⁶⁹⁾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산에서 동학농민군이 새로운 진영을 갖추는 동안 각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관아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군현의 군수나 현령은 도망을 가고 호장과 이방 등이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감영으로 보고하였다.⁷⁰⁾ 이러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각 지역에서 백산으로 집결하기 앞서 관아를 먼저 점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산에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군세의 전열을 정비한 동학농민군은 일부를 백산에 남겨두고 3월 말경 전주를 점령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백산을 중심으로 태인, 부안, 금구, 무장, 고부, 정읍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백산에 남아있던 동학농민군은 부안의 동학농민군을 총동하여 하동면 분토동에 집결케 하였다. 이곳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5백여 명이었지만 부안, 고부, 영광, 무장, 흥덕, 고창 등지에서도 합류하였으며, 각각 죽창을 들었고 붉은기에는 ‘보국안민’이라고 썼다. 이들 동학농민군은 4월 1일 부안을 점령하고 장청에서 대기하고 있던 순영문의 포군들을 추방하였다.⁷¹⁾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분전하여 세금을 거두는 폐정 등을 개혁하기도 하였다.⁷²⁾

이후 동학농민군은 4월 17일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한 후 나주 등 일부를 제외한 호남일대를 점령한 후 4월 말경 전주성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점령한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이른바 민정을 실시하였다.

6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쪽.

69) 황현, 『오하기문』, 수필(『번역 오하기문』, 76쪽).

70) 황현, 『오하기문』, 수필(『번역 오하기문』, 76쪽). “이 무렵 여러 고을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계속되었는데, 수령들은 죄다 도망하고 다만 각 고을의 戶長 吏房 首刑吏들이 문서를 울렸을 따름이다.”

71) “지금 이들 장정을 모으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동학농민군-필자주) 방어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일제히 나가서 각자가 하던 일을 중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내쫓았다.

72) 『수록』, 갑오년 4월 초5일조(『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9-10쪽).

5. 맺음말

이상으로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기포한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백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해보았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고부기포와 무장기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없지 않았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단절이나 연속성이냐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이 언제부터냐 하는 것도 맞물리게 있다.

그렇다면 우선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었던 당시에는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던 당시 조정에서는 “호남의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이 처음에는 고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⁷³⁾하여, 고부기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비롯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1898년 해월 최시형을 교형에 처할 때 역시 “갑오년 봄에 피고 전봉준은 고부지방에서 패거리를 불러 모아서 기회를 틈타서 관리를 살해하고 城과 鎭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湖西와 湖南 지방이 결판이 나고 뒤흔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고 하였는바, 이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는 고부로 여전히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고부에서 기포한 이후 무장을 거쳐 백산에서 혁명군으로 위상을 갖추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고부기포의 성격이다. 고부기포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서 前段階 즉 民亂으로서의 인식이 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기포는 3월 13일 ‘완전 해체’⁷⁴⁾ 또는 “결국 3월 13일에 이르러 두 달 동안 환히 타올랐던 조항의 횃불이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⁷⁵⁾라고 확신하였다. 이는 고부기포와 무장기포를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부기포의 지도부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무장에서 다시 기포를 준비하였다. 이는 고부기포의 완전 해체 또는 완전히 꺼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무장기포는 고부기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부기포를 처리하기 하기 위해 파견된 고부군 안핵사 이용태의 신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부기포가 일어나자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여 실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용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3월 2일에 고부에 도착하였다. 이후 이용태는 동학교인의 색출과 잔혹한 탄압을 자행하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은 일시적으로 해산하였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존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고부기포에 이어 무장기포, 백산대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용태는 직무 태만으로 4월 21일 금산군으로 竄配되었다.⁷⁶⁾ 이는 고부기포의 지도부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무장기포,

73) 『고종실록』 31권, 갑오 4월 18일조.

74) 정창렬, 「갑오동학농민전쟁연구」, 125쪽. 정창렬은 고부기포는 기본적으로 2월 말에 해체되었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이용태에 의해 고부민란이 철저한 해체되었다고 하였다.

75) 장영민,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경인문화사, 2004, 253쪽.

76) 『고종실록』 31권, 갑오 4월 21일조.

백산대회의 지도부를 형성하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고부기포와 무장기포가 별개의 사건이었다면 이용태는 '찬배'라는 형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둘째, 무장기포의 성격이다. 최근의 연구동향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이 무장기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무장기포를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로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논의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본다.⁷⁷⁾ 무엇보다도 고부기포와 무장기포, 그리고 백산대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개과정에서 지도부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동학농민군의 최고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전봉준을 비롯하여 최경선, 송대화 등이 고부기포를 주도하였으며, 이후 전개되는 무장기포와 백산대회의 최고지도부로 여전히 추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부기포와 무장기포는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연속상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부기포와 무장기포 또한 그 주도세력이 동학 조직이었다는 점에서도 동일선 상에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지성'이나 '전국성'이나를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을 논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전체의 흐름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로 볼 때 무장기포는 고부기포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백산이 동학농민혁명에서 갖는 의의이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백산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군이 주둔하였다. 첫 번째는 고부기포 이후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여 일이었고, 두 번째는 무장기포 이후 3월 26일부터 3월 말경까지 4, 5일 정도였다. 이 두 차례에 걸친 백산 주둔은 무엇보다도 우선 동학농민군의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었다. 동학농민군이 백산으로 모인 것은 비결의 의한 길지, 군량미 확보가 용이한 곡창지대,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등으로 이는 전략적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백산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학농민군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한편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백산대회를 가짐으로써 혁명군으로서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좀 더 구체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백산대회에서 비로소 혁명군의 지휘체계의 확립되었다. 고부기포에서는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하였지만 지휘체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무장기포에서도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의 참여로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확대되었지만 지휘체계는 여전히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백산대회에서는 호남 전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상명하달이 지휘체계의 확립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봉준을 대장, 손화중과 김개남을 총영관으로 하는 동학농민군으로서의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둘째는 백산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고부기포와 무장기포에서 사발통문과 포고문 등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혁명으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백산의 격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백

77)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준비하고자 한다.

산대회의 격문은 반봉건 반외세, 그리고 민족적 연합전선을 촉구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고부기포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백산대회의 격문은 무장기포의 포고문보다 고부기포의 격문에 더 충실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백산대회는 동학농민군 전열의 정비였다. 즉 12조의 기율은 동학농민군의 행동지침으로 당시 부패한 관군과 차별성을 통해 일반 민중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넷째는 백산대회는 호남 일대 동학농민군의 연합전선이었다. 백산대회는 호남 전 지역의 동학농민세력을 집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이후 동학농민군이 고부의 황토현전투, 장성의 황룡촌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전라도의 수부 전주성을 점령할 수 있는 단초적 역할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백산대회는 동학농민군의 지휘체계 확립,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 확보, 동학농민군의 전열 정비, 그리고 민족적 연합전선의 촉구 등으로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는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가 강조하였던 보국안민의 실천, 그리고 안으로는 조선왕조의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개혁하려는 반봉건적 근대화와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반외세 반제국, 반침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현상이었다.

결론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은 고부기포였으며, 무장기포를 거쳐 백산대회를 통해 동학농민군은 명실상부한 혁명군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부와 백산은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종 합 토 론

- [토론 1]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민란과 변란
조광환(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토론 2] 동학의 창도와 개혁사상
임현진(고려대학교)
- [토론 3] 교조신원운동기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
박준성(역사문제연구소)
- [토론 4] 고부봉기에서 백산대회까지
강효숙(원광대학교)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민란과 변란

조광환(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질문 1.

머리말에서 발제자는 “그 동안의 많은 연구는 소빈농층만이 투쟁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 다양한 계급적 편차를 가진 운동세력이 운동의 질적 발전과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합·분화되는 측면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특히 근대 민족의 형성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민족 내부의 다양한 계층 움직임과 노선 차이 등을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서는 ‘3. 19세기 후반 화적 활동과 성격’이란 소제목으로 화적들의 활동을 주목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인가?

질문 2.

또 내용면에서 “화적은 전에도 많았으나, 특히 개항 이후 1882년부터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이때부터 화적은 ‘없는 날이 없고 없는 곳이 없다.’고 표현될 정도로 전국에 만연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또 “변란은 18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거의 사라지는데, 그것은 화적의 조직과 규모 등이 성장하면서 변란세력이 보다 현실과 사회적 모순을 바탕으로 농민봉기나 화적, 동학으로 흡수되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농민항쟁으로 흡수되어 들어간 사례는 들었는데, 화적으로 흡수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 3.

배항섭은 『1894년 농민전쟁 연구2』 「19세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에서 “변란은 개항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꾸준히 나타나다가 민란이 전국 각지에서 다발하는 18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882년 조병천의 서울 변란, 1890년 이근응의 서울변란 밖에 없다. 이와 같이 1880년대로 넘어오면서 변란이 줄어드는 이유로 배항섭은 조선사회에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던 양이의 침공을 이미 수차례 겪었을 뿐 아니라 양이의 실체도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점을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발제자가 질문 2.에서 인용한 변란세력이 사라진 이유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 4.

광양변란과 영해변란세력을 화적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근거로 “민회행과 이필제가 광양과 영해를 점령할 때 밤을 타서 습격한 점이나, 무기를 소지한 점이나, 두목의 지휘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점 등은 화적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면을 볼 때 19세기 후반에 크고 작은 변란을 일으킨 세력과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던 화적은 서로 통하였던 것 같다.”고 하였는데, 무기 소지나 두목의 지휘에 의한 조직적 움직임 등은 변란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무리한 연결이 아닌지. 특히 영해변란은 발제자도 밝힌 바와 같이 영해가 초기 동학 포교지로 동학교인들이 많았기에, 이필제는 동학교도를 자처하여 교조신원운동을 명분으로 거사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화적과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질문 5.

“더욱이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전 반봉건·반외세적인 사회집단으로 대두한 세력은 크게 보아 군현 단위의 민란 경험을 축적한 농민층과 농촌을 떠나 자유롭게 활동하던 화적 집단, 그리고 동학 내부의 혁신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여, 중심세력 중 하나로 화적집단을 들었으며, “그것은 곧 19세기 변란의 큰 흐름이 화적, 그 중에서도 활빈당과 같은 의적류의 무장집단으로 흡수되고 그것이 동학과 민란과 결합, 대대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는데, 화적의 활동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지. 발제자의 주장처럼 보기에는 너무 근거가 미약하지 않은가?

질문 6.

“1885년 이후 화적들이 공공연히 관아와 지방관을 공격하고 굴충이라는 새로운 약탈수단이 일반화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관에 대한 약탈은 곧 화적들의 인식지평이 국가권력에 대한 부정으로 확대되었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체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굴충이 일반적인 약탈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화적들이 유교사회를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는 유교적인 관념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유교사회 부정은 곧 체제 부정인데 굴충이란 행위를 과연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

동학의 창도와 개벽사상

임형진(고려대학교)

박 교수님의 글은 동학의 창도배경과 수운 최제우의 경험과 실천 속에서 구체화 되는 동학사상의 형성과정 그리고 그 사상적 특성까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 또한 동학연구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한 해월 최시형의 업적과 그 영향을 평가하며 그의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동학의 창도에는 분명 시대적 배경이 필요했고, 그것을 대외적 위기와 대내적 위기로 구분해 설명해 주는 방식이나, 수운 최제우의 개인적 경험이 미친 동학사상 형성의 과정 그리고 그 사상적 특성인 개벽사상과 시천주의 수련법, 민족 주체이념, 치병과 유무상자의 사상 그리고 정감록과 같은 민중사상의 제시와 이를 계승한 해월 최시형의 평가 등 박 교수님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에 논자는 대부분 공감하며 다시 한 번 동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박 교수님은 동학연구는 수운이 동학창도 당시 가졌던 의식, 이른바 반침략적 저항의 측면과 민중주의적 사고를 이해함으로써 반봉건의 논리도 반침략의 이데올로기도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동학연구방법론의 과제는 이 양 측면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조선민중의 자기 확립 사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신다. 박 교수님의 지적과 제언에 동의한다.

분명 동학은 조선사회의 해체기에 발생한 민족이념으로서 그것은 특히 당시의 피폐화된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어 반봉건 반외세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완수해 지상에서의 개벽된 세상의 군자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개벽의 이름으로 동학은 그때까지의 민중적 사고의 총결산이자 그들의 이상적 세계관이 수운 최제우를 통하여 구체적인 이상사회의 건설로 완결된 것이다. 동학에서 주장하는 시천주, 인내천의 사상은 우리 민족이 아득한 옛날부터 생각하여온 천신숭배의 신앙이 동학에 이르러 창조적인 모습으로 승화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과 관련시켜 생각해 오던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 동학에 이르러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그들 이상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운의 구상은 대인 관계의 윤리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동학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유교적 인간관계는 상하주종의 관계로 대표된다. 봉건적 양반 질서에서 나와 타인의 관계는 재상자나 재하자나, 내가 군림해서 지배할 것인가, 내가 그의 하인이 되어 복종할 것인가 등을 먼저 따지는 주종관계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동학은 그런 신분 차등의 인간관계의 근본에 변혁을 몰고 왔다.

사람이면 상하귀천을 불구하고 시천주자로서 모두 대등하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한울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인간 평등의 윤리를 개척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인간관계의 근본은 이후 수운의 후계자인 해월 최시형의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사람을 섬기되 한울같이 하라.’는 사인여천의 근대적 시민 윤리로 귀결되었다. 해월의 사인여천의 윤리에서는 어린이나 당시 천대받던 상민·천민, 남존여비 시대의 아녀자 등이 모두 시천주이므로, 나는 그들을 한울처럼 섬겨야 한다는 ‘경천·경인’의 인간존중주의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인간이 대하는 모든 물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경물사상으로 확대됨으로써 만물공동체의 완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동학은 이러한 공동체의 운영 주체를 인간 그 자체로 확고히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들 개개인간의 도성덕립(道成德立)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수운 최제우에게서 추구되는 개혁의 세상은 종교적 차원의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세계에서 인간들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것은 후천개혁의 단계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도성덕립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新人間)들의 세상, 이른바 군자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국가를 혁신시키는 방법에는 법과 제도적 완비를 통하여 목표를 이루는 개혁과 국가 정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 폭력적 무력을 불사해 권력을 장악하는 혁명이 있다고 본다. 개혁이 점진적인 법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 여긴다면 혁명은 권력 장악을 기초로 급진적이고 과격한 변혁을 추구한다. 역사에 오른 투쟁적 혁명과 각론적 개혁은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지만 근원적인 변혁과 혁신을 이루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조선의 누란지위에 등장한 동학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변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개혁을 주장했다.

수운 최제우는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유도, 불도가 아닌 새로운 도를 통해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기존의 방법론인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밑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혁을 도모하는 개혁이었다. 개혁은 인류의 역사와 현실 세계인 선천세계를 송두리째 거부하고 새로운 후천세계를 여는 웅장한 역사의식이다. 수운은 개혁을 통해 당대의 고통받는 조선 민중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이상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박 교수님은 이러한 수운의 개혁인식은 무위이화한다는 주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무위이화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질서인 천도로 돌아가는 즉, 회복되어 다시 천도와 일치하는 세상이라는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님의 더 많은 지혜를 얻고자 몇 가지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린다.

첫째, 동학창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실학의 한계와 세도정치의 폐를 지적하고 계셨다. 사실 18세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학문적으로는 실학이 확대되었지만 현실적 변혁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다고 보아진다. 최근 정조 사후의 18세기

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8세기 몰락의 원인이 정조에게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세도정치의 본질이 원인이라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박 교수님은 동학창도 이전의 18세기의 혼란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동학은 근본적으로 수운의 아버지 최옥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영남 남인 유생의 입장에서 최옥은 현실 개혁의 사상을 가졌을 것이고, 그것이 수운에게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최옥의 개혁적 성향이 동학사상에 미친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

셋째, 박 교수님은 정감록적 민중신앙이 동학에 영향을 미친 바를 지적하고 있다. 개혁사상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정감록적 민중신앙이 남아 있다.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개혁을 말하고 있다. 박 교수님은 동학이전의 정감록과 동학의 민중주의적 성격을 구분해 주셨는데, 오늘의 정감록적 민중신앙들과의 동학사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알고 싶다.

교조신원운동기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의 성장

박준성(역사문제연구소)

1894년 농민전쟁의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도세력'을 농민군 지도자들인 '주도층', '영도자'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와 '주력군' '중심세력'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주도세력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주도세력으로 볼 것인가? 그 주도세력이 1894년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가 아니라 '교조신원운동기'에 형성, 성장하였다면 이 시기에 집중해서 성장의 구심력, 원동력, 확장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성장한 주도세력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한 역할을 살피는 것이 합당한 순서일 것 같다.

1894년 농민전쟁에 참여한 농민군에는 핵심세력인 주력군이 있었고, 그 주력군을 지도하고 농민전쟁을 이끌어 나간 지도자들이 있었다. 주력은 아니었지만 동조자로 가담한 참여층이 있었다.

사회 변혁운동에서 지도자들의 조직력과 재능, 의식은 지도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도자에게는 대중을 조직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이나 지식, 힘이나 통솔력, 지지기반인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참가자들은 지도자에게 일방적으로 지도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는 참가자들의 요구와 이해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지도자의 이념과 노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전봉준·김개남·손화중·김덕명·최경선은 1894년 농민전쟁의 핵심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혁신적 지식인층', '남접의 접주, 접사', '호남의 진보적 지식인들로서 전봉준 계열'로 일컬어졌다. 이들은 '혈연, 지연, 학연'을 매개로 1894년 농민전쟁 이전 시기, 교조신원운동기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연'이 바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혈연, 지연, 학연'이 같다고 '운동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지식인들의 보편적 학문 사상은 유학이었으며, 주류 학문인 유학에서 보았을 때 동학은 '사교'였다. '유학'과 '동학'이 농민전쟁 지도자들을 결집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동학을 수용할 수 있는 유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향촌의 몰락 양반, 잔반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학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동학을 신봉한다고 해서 모두가 농민군 지도자가 되거나 주력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학이나 동학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 차체로 운동,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주체로 나설 수도 없다.

유학자와 동학도를 지도자로 성장시키고, 그들 사이를 매개했던 것은 현실인식, 사상, 이념, 노선, 세력기반의 동일성과 실천의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봉준이 '농민군에게 동학도가 합세하기는 하였으나 동학도는 적었고 원민(冤民)이 많다'고 하였던 원민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인간답고 평등한 삶과 세상의 추구였다.

1893년 금구집회의 참여층들도, 보은집회 참여층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보은집회의 참여의 면모들이다.

- 조금 재주가 있는 것들로 불평이 가득 차 뜻을 얻지 못하는 자들,
- 탐학이 횡행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서 민중을 위하여 그 목숨을 구해보려는 자들,
- 바깥 오랑캐들이 우리의 이권을 빼앗는 것을 통분하게 여겨 망령되이 이를 막아보겠다고 큰소리치는 자들,
- 탐관오리의 수탈을 받고도 호소할 곳이 없는 자들,
- 곳곳에서 양반 토호로부터 협박 공갈을 받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자들,
- 온 나라에서 죄를 짓고 목숨을 도망한 자들,
- 지방 관아에 딸린 무리로 의지할 곳 없어 떠돌아다니는 자들,
- 농사를 지어도 남는 곡식이 없고 장사를 해도 남는 이익이 없는 자들,
- 무지몽매한 것들이 풍문을 듣고 동학에 드는 것으로 살 곳을 찾았다고 여기는 자
- 빛을 지고서 독축에 견디지 못하는 자들, 상놈 천민으로 한번 출세해 보려는 자들

⑤ - 연가를 열심히

· 기념일.

고부봉기에서 백산대회까지

강효숙(원광대학교)

1. 발표문의 의의

발표자는 머리말에서 본 논문의 목적을 고부기포, 무장기포, 백산대회를 시기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살피는데 둔다고 밝혔다. 논자는 그와 더불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하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있어 비교 내지 근거 자료로써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본다.

기념일 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문제점을 족집게처럼 제시해 준 공적도 있다. 즉 어떤 사건이든 기승전결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아무야하고 흘려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논자는 동학농민혁명 역시 그 기승전결에 대한 진지한 발표나 토론 등이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승전결 가운데 ‘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중심은 실질적으로는 고부기포를 동학농민혁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동학농민혁명의 전단계인 민란으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 기포 시기, 격문·통문·창의문(포고문)의 내용 및 성격, 규모, 지도부의 중복성, 조직력, 각 기포의 상호 연계성, 기포에 대한 인식 등을 비교, 분석, 정리하여 명확하게 고부기포를 ‘동학농민혁명’으로 정리한 데 있다고 본다.

발표자는 또한 백산대회의 성격을 ‘동학농민혁명군의 위상 확립’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처음 시도되는 주장으로 향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중요한 잣대 역할, 비교의 근거로써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발표자는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수를 동학의 접포조직을 기준으로 각 160집에서 200명씩의 참가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3만 2천여 여명으로 환산하였는데 이 또한 새로운 시도로, 향후 많은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 및 새로운 관점 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만, 환산 근거로 보다 실증적인 자료나 다른 기포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리된다면 한층 객관적인 숫자가 산출 될 것이다.

2. 발표문 재정리

이상의 발표자의 주장을 다시 ‘각 기포의 연계성’이란 차원에서 나름대로 재정리하면서 동시에 논자의 생각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고부기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당시 조정은 “호남의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이 처음에는 고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였고, 동학 교

단의 최시형 역시 “갑오년 봄에 피고 전봉준은 고부지방에서 패거리를 불러 모아서 기회를 틈타서 관리를 살해하고 城과 鎭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湖西와 湖南 지방이 결판이 나고 뒤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즉, 당시의 조정과 동학교단은 동학농민혁명이 고부기포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어 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음으로 각 기포와 동학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고부기포 당시 전봉준은 기포 이유를 宋柱晟으로 하여금 최시형이 있는 도소에 알렸고, 태인·금구·남원·무장·부안 등 각 지역의 접에 격문을 띄웠다. 또한 송두호의 집에 도소를 설치하였다. 백산 주둔 당시에는 전봉준은 58개 지역 동학농민지도자에게 비밀리에 격문을 보냈고, 무장기포 때는 손화중이 참가하였으며 그의 집에 도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고창·무장·흥덕·정읍·남원·태인·금구 등의 포 조직에서 참가하였다. 백산 기포 때는 전라도 전역의 34개 지역의 접에서 참여하였다.

즉, 고부기포 당시부터 접·포 등 동학 관련자가 지도자나 참여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지도부 및 참여자의 중복성을 살펴보면, 전봉준은 고부기포의 중심인물로 이후 계속 지도자로서 활동하였고 손화중과 전라북도의 많은 접주들이 무장기포 때부터 참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의 경우는 고부지역의 동학농민군 및 일반농민의 범위에서 무장기포 때는 전북지역 각 접에서 8,000여 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백산대회 때는 접주와 참여자들의 범위가 전라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발표자의 주장에 의하면 3만 2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즉, 고부 -> 전라북도 -> 전라남북도로 확대되면서 참가지역과 참가자는 자연스럽게 중복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중복관계는 발표문에서 소개하는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각 기포의 격문·통문·창의문(포고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공통점으로써 보국안민과 제세안민을 찾을 수 있는데, 고부기포의 경우는 척왜양창의 성격이 다른 기포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고부기포 이후의 각 기포를 이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발표자는 고부기포의 통문 등의 내용을 “1893년부터 전개하였던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 운동에서 주장하였던 것이 집약” 된 것으로 보고, 고부기포 “이후 전개되는 무장기포, 백산대회의 포고문과 창의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연계성’이라는 관점으로만 보아도, 고부기포에 관한 인식, 동학과의 관계, 지도자와 참여자의 중복성, 통문·격문·창의문의 내용 등에 대한 간단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고부기포, 무장기포, 백산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도 갑자기 하늘에 툭 떨어지듯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전의 배경 등이 반드시 존재한다. 또 역사연구에 있어 시대구분을 할 때도 어느 한 시기가 갑자기 전 시기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최정식) (이제고 문씨)
② 무장기포 (4.가)
2004 동학농민운동

이와 같은 상식선상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고부기포는 반드시 직후의 무장기포와 연계되어 있고, 무장기포는 백산대회와 역시 연결되어 있다. 하물며 발표자의 논문만을 근거로 정리하여 전술한 내용만으로도 그 연계성을 밝히는데 부족함이 없다.

3. 감상

고부기포, 무장기포, 백산대회가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고부기포를 동학농민혁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고부기포를 동학농민혁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전단계의 민란으로만 볼 것인가라는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논자는 이것을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고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하여도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다만 논자로서 요구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시대구분의 논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발표자는 논문에서 “백산대회를 가짐으로써 혁명군으로서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갖추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른다면 “혁명군으로서 위상을 명확하게 갖춘” 백산대회 전단계의 무장기포 역시 “동학농민혁명”으로 보기에 는 애매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만다.

한편, 고부기포 때는 ‘척왜양창’이 다른 기포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전쟁)과 깊이 관련되는 이념·사상으로, 대내적인 성격이 훨씬 강한 무장기포, 백산대회를 뛰어 넘는 부분이다. 즉 최초의 고부기포에 이후의 모든 1차, 2차 동학농민혁명(전쟁) 활동의 기초가 다 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지역적으로는 전라북도 고부라는 작은 마을에 한정되고, 확립된 체계는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기에 사상·이념적으로 이후의 대내적·대외적 동학농민혁명(전쟁)을 이끄는 사상·이념적 꽃봉오리가 맺어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격규명과 개념정리에 향후 특히 일본측의 자료 활용을 요구한다. 일본 해군성과 육군성 등에서는 1893년 이전부터 철저하게 동학에 관한 정보와 첩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었고, 각 신문사의 특파원 등은 일본의 각 지역에 동학 관련 기사를 송고하였다.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눈에, 그리고 신문기자나 일반인으로 첩보 활동을 한 자들의 눈에 과연 고부기포는 지금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보였었는지?

앞으로 일본(국외)의 관점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국내 관점과의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근업. 치악 (치제우기무치)

< 치제우기무치 >

하

< 치제우기무치 >

13년 한달 (치제우기무치)

○ 유교

○ 불교

○ 인교

○ 서학

○ 미안신앙

○ 정신학

동학농민혁명 제117주년
제44회 황토현동학축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 동학의 창도에서 백산대회까지 -

정읍시/(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